발간등록번호
진흥원-2021-121

다문화보육
지침서

# 모두를 나답게 키우는 어린이집 속 다문화

어린이집안전공제회
Childcare center Safety & Insurance Association

KCPI 한국보육진흥원
Korea Childcare Promotion Institute

취약보육(다문화) 보육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Childcare center Safety & Insurance Association 지원 사업입니다.

# 모두를
# 나답게 키우는
# 어린이집 속 다문화

# 목차.

## 1장_ 다문화보육 이해하기


8 1-1. 다문화사회, 한국

10 1-2. 다문화보육 이해하기
10 1) 다문화보육이란?
11 2) 다문화보육의 필요성
13 3) 다문화보육에 대한 오해
14 (1) 나의 특권 확인하기

16 1-3. 다문화감수성
16 1) 다문화감수성이란?
19 2) 나의 다문화감수성 확인하기
21 3) 우리 어린이집 다문화감수성 높이기
21 (1)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없애기
24 (2) 이중언어가 좋은 거라고요?
27 (3)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기


## 2장_ 다문화보육 실천하기


30 2-1. 다문화보육 교수법

34 2-2. 다문화보육 실천하기
34 1) 놀이실 환경 구성하기
38 2) 영유아·보호자와 라포 형성하기
41 3) 활동 구상하기
41 (1) 그림책 읽고 이야기 나누기
48 (2) 이야기 인형 활용하기
50 (3) 이야기 재구성하고 역할극하기
52 (4) 인터뷰하기

## 3장_ 다문화보육, 아직도 궁금해요


56 3-1. 소수자 영유아, 이것이 궁금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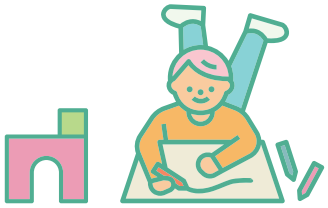
56 1) 인지/언어 영역

61 2) 사회/정서 영역

65 3) 신체/건강 영역

66 4) 놀이/활동

72 3-2. 소수자 보호자, 이것이 궁금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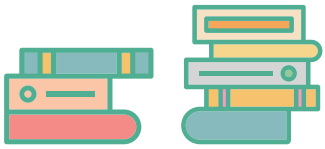
## 4장_ 부록


76 [부록 1] 어린이집에서 다룰 수 있는 다문화보육의 주제

77 [부록 2] 다문화보육 지원 사이트 안내

79 [부록 3] 다문화수용성 체크리스트

81 참고 문헌

"책을 시작하기 전에"

책을 시작하기 전에, 19쪽 <다문화감수성 지수 측정표>를 활용하여
나의 다문화감수성 지수를 측정해보세요. 자료를 읽은 후,
재측정하여 나의 다문화감수성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비교 및 확인해보세요.

# 1장

"다문화보육 이해하기"

### 1장 다문화보육 이해하기를 읽으면...

1 -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어요.

2 - 우리 반의 다문화감수성을 높이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3 -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영유아의 언어 발달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 1-1. 다문화사회, 한국

☑ 읽기 전 체크리스트

아래 문장들을 읽고 동의하는 이유와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 ☐ 한국은 단일민족 사회이다.
- ☐ 다문화는 나와 관련이 없다.
- ☐ 다문화가정은 저소득 국가 출신의 외국인 가족을 지칭한다.

2020년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다문화영유아[1]가 재원 중인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44.8%에 이른다고 합니다[1]. 두 개 중 한 어린이집에는 다문화영유아가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문화영유아, 언제부터 이렇게 늘어난 걸까요? 다문화영유아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그동안 우리는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며 사회과 교과서를 통해 한국인은 단군의 자손으로 민족, 언어, 문화, 혈통이 같은 단일민족이라고 배워왔습니다(허동현, 2009)[2]. 과연, 한국인은 순수 혈통을 가진 단일민족일까요? 여기에 대해 최근 과학 기술이 답해주었습니다. 한국 현대인과 고대인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은 특정 지역에서 고립되어 나타난 단일민족이 아니라, 수만 년 동안 동시베리아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장·이동·혼혈을 거쳐 진화한 혼합 민족이라는 것입니다(Kim et al., 2020)[3].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문화'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미지는 언제부터, 어떻게 형성된 걸까요? 이것은 한국의 다문화정책과 연관이 깊습니다.

1980년 초 만해도 한국은 노동 인력을 수출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소위 '한강의 기적'을 거치고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올라가게 되면서 다수의 한국인이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3D 업종을 기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중소기업 중심의 노동력 부족 현상은 1992년 말, 외국인 근로자 도입 합법화에 이르게 합니다(통계개발원, 2008)[4]. 비슷한 시기에 여성의 수가 부족한 한국 농촌을 중심으로 결혼이민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저소득 국가 출신의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출현하게 됩니다. '다문화'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무의식 중에 떠올리는 사람들이 특정 인종, 국적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다문화의 뜻에 대해 다시 생각해봅시다. 다(多)문화는 많은 문화, 즉, 문화의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문화란 인간이 모여 살면서 만들어 행하는 모든 행위와 표현을 지칭합니다. 언어, 생활습관, 가치관, 예술, 종교, 지식, 풍속, 제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사투리는 문화의 산물일까요? 지방마다 다른 김치 맛을 문화 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모두 맞습니다. 문화는 인종 및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족 간, 세대 간, 지역 간에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한국은 본디 다문화사회입니다.

**문화다양성이란?**

국적, 성, 인종, 종교, 지역, 성별, 세대, 장애, 성적 지향 등 개인, 집단, 사회의 문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교육부, 2020)[5]

우리 모두가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문화를 형성해 온 '문화적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다문화보육의 시작입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를 인정해야 다른 사람의 문화 역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多)문화, 우리 모두의 문화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 읽은 후 체크리스트

아래의 문장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 ☐ 한국은 단일민족 사회이다.
- ☐ 다문화는 나와 관련이 없다.
- ☐ 다문화가정은 저소득 국가 출신의 외국인 가족을 지칭한다.

**함께 생각해요**

1 - 우리 가족만의 재미있는/색다른 문화에는 무엇이 있나요?

2 - 다른 어린이집과 구분되는 우리 어린이집/학급만의 독특한 문화는 무엇인가요?

① 본 장에서는 '다문화'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 교사에게 익숙한 단어를 사용하고자 '다문화영유아' 혹은 '다문화가정'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본 장의 중반부부터는 '인종, 언어, 민족, 문화적으로 소외된 아동/집단,' 혹은 '인종, 언어, 민족, 문화적 소수자'이라는 보다 정확한 표현이 사용됩니다.

## 1-2. 다문화보육 이해하기

☑ 읽기 전 체크리스트

아래 문장들을 읽고 동의하는 이유와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 ☐ 다문화보육은 다문화영유아를 위한 것이다.
- ☐ 다문화보육은 다른 나라의 전통의상, 음식, 명절을 알고 체험하는 것과 관련된다.
- ☐ '한국 영유아'만 있는 어린이집에는 다문화보육이 필요하지 않다.

### 1) 다문화보육이란?

다문화가 다양한 문화, 문화의 다양성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다문화보육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 모두가 국적, 인종과 상관없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왜 굳이 따로 다문화보육을 해야 하는 걸까요?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문화보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보육과정[6]에 따르면 다문화보육은...**

- 영유아가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편성, 운영"**하고,
- 영유아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신과 상대와의 다른 점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특성으로 받아들이고 편견없이 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 영유아가 **"다양한 가족 형태 및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p. 30).

다시 말해, 영유아가 '다름' 때문에 차별하거나 차별받지 않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도록 가르치는 것이지요.

다문화보육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문화보육을 보다 다양하고 넓게 정의합니다. 다문화보육의 범주, 실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의견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문화보육의 다양한 정의**

"모든 학생의 교육적 평등을 증진하도록 고안된 학문"
**(Banks, 2004, p. xii)**[7]

"문화적 다양성을 기리기 위해 학교에 도입된 정책, 프로그램, 교수법 모두를 지칭"
**(Gay, 1994, p. 17)**[8]

"학교와 사회에 존재하는 인종차별주의 및 여러 형태의 차별을 거부,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학생과 그들의 공동체, 그리고 교사들의 모습을 반영한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Nieto, 2002, p. 29)**[9]

다문화보육을 이야기 하는데 왜 '다양성'이라는 말 외에 '평등,' '차별'과 같은 단어들이 언급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문화보육의 궁극적 목표가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고 형성하는 것(Ramsey & Williams, 2003)[10]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문화보육은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다문화보육의 등장배경을 통해 알아봅시다.

## 2) 다문화보육의 필요성

대한민국의 다문화보육은 소수자의 적응을 목표로 하며 이루어져 왔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인해 한국 외 문화권의 영유아와 보호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다문화보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죠.

**"저희 반 아이들과 부모님은 모두 한국인이라 다문화보육이 필요 없어요."**

그러다보니 다문화보육은 외국인근로자나 결혼이민자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이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보육은 나와 인종, 언어, 국적, 문화 등이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적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영유아를 위한 것이지요. 다문화보육이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둘러싼 권력관계를 인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주류 집단'과 '소수자 집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주류 집단**

특정 사회 내에서 인종, 언어, 민족, 문화적 특권을 가지고 힘을 행사하는 집단

**소수자 집단**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집단

### 머릿속에 '한국인'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모습을 상상하셨나요? 까만 머리, 까만 눈동자, 너무 하얗지도 까맣지도 않은 동양인의 피부색을 지닌 모습이 떠오르셨나요? 바로 이 모습이 한국에서 주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류 집단이라는 것은 주로 고정관념에 의해 형성이 됩니다. 한국인이 동아시아 인종이어야 한다는 것 역시 고정관념이 반영된 것이지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고정관념으로 주류 집단을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몇 세대에 걸쳐 미국에 정착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보다 영어와 미국문화가 더 익숙한 재미교포들 역시, '미국인은 백인'이라는 고정관념적 논리에 의해 늘 이방인 취급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주류 집단이 인종에만 국한되어 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어를 사용하고 일본 문화를 익히며 자란 재일교포는 인종, 언어, 민족, 문화적으로 여타 일본인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주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은 특정한 논리를 가지고 있기보다 다른 이를 배척하기 위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다문화보육이 필요합니다.

**다문화보육이 필요한 이유 1**

인종, 언어, 민족,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수자 집단을
배척하고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소수자 집단에 대한 배척과 차별은 의식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정 인종, 민족, 국적의 사람들에 대해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경우는 의식적인 배척과 차별에 해당합니다. 반면, 소수자 집단에 대한 무관심, 선입견 등은 무의식적인 배척과 차별에 해당합니다. 소수자 집단이 겪는 차별과 고통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은 주류 집단의 특권인데, 이러한 무관심은 주류 집단의 특권을 묵인하고 사회적 차별을 지속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특권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에게 특권으로 작용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차별이 되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이것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땅콩버터, 햄, 치즈를 넣은 맛있는 샌드위치 만들기 활동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하지만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는 영유아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어 소외감을 느끼겠지요. 처음부터 영유아의 다양한 특징을 고려했다면 어떠했을까요? 내가 일상에서 불편을 느끼는 것이 없듯이, 내가 누리는 특권이 없는 사람도 불편함 없이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를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이 다문화보육입니다.

**다문화보육이 필요한 이유 2**

**주류 집단의 특권을 인지하고 동일한 특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특히, 주류 집단과 다른 인종, 언어,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소수자 집단)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다문화보육은 인종, 언어, 민족,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미흡한 정보 때문에 본의 아니게 차별을 할 수도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 3) 다문화보육에 대한 오해

만약, 다문화를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이해하기보다 특정 인종 및 민족 집단이라고 인지하고, 다문화보육 역시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특정한 인종, 언어, 민족, 문화적 특성을 지닌 영유아를 '다문화'라고 통칭하여 부르며 지속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소외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종, 언어, 민족, 문화적 다름으로 인해 내가 느끼는 당혹감과 어려움을 불편한 것으로 여기고, '한국인 영유아·보호자'만 있었다면 굳이 안 해도 되었을 다문화보육을 번거로운 것이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는 무의식 중에 주류 집단 한국인의 문화만 가치 있는 것이라 여기며 인종, 언어, 민족, 문화적 소수자 집단이 본래의 언어와 문화를 버리고 한국사회에 동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그동안의 다문화보육은 이러한 동화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억압하고 획일화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올바른 다문화보육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걸까요? 다문화보육을 하기 위해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나요? 그 중 하나는 교사 스스로 내가 가진 특권에 대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 (1) 나의 특권 확인하기

많은 경우,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자신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대접받으며 더 누리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권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특권: 가진 자로서의 여유(김지혜, 2019)[11]**

아래의 '한국인 특권 체크리스트'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이 가진 특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더불어, 나에게 당연한 것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인종, 언어, 민족, 문화적 소수자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한국인 특권 체크리스트>[2][12]**

| 문항 | V |
|---|---|
| 나는 언제든지 한국인들과 어울릴 수 있다. | |
| 혼자 길을 걸어갈 때,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없다. | |
| 나의 이웃은 나를 신경 쓰거나 불편해 하지 않는다. | |
| 나에게 '어디서 왔냐?'고 묻는 사람이 없다. | |
| 나의 한국어 발음에 대해 칭찬하는 사람이 없다. | |
| 어떤 가게에서든 내가 평소에 먹는 식재료를 살 수 있다. | |
| 내가 어떤 말에 대답하지 않아도 그 이유가 내가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 |
| 공공시설(대중목욕탕,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때 사람들이 나를 피하지 않는다. | |
| 화장품 가게에서 나의 피부색과 맞는 화장품을 쉽게 고를 수 있다. | |
| 나의 배우자는 나와 함께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 |
| 어딜 가든, 아무도 우리 가족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는다. | |

| 문항 | V |
|---|---|
| 나는 내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하지 않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
| 나는 나의 아이를 따돌리는 아이와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
| 나의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내용이 내 아이의 국적/인종/문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음을 안다. | |
| 길을 가다가 경찰이 불러도 내 신분을 의심해서가 아님을 안다. | |
| 내가 사회적 소수자를 도와주는 일을 하더라도 내 신변이 위험해지지 않는다. | |
|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관심 가지지 않아도 나의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 |
| 내가 입는 옷, 나에게서 나는 향이 누군가를 불쾌하게 할까봐 걱정하지 않는다. | |
| 공공장소에 갈 때 불쾌하거나 창피한 일을 겪을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
| 내가 겪은 나쁜 일이 인종차별과 연관이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 | |
| 내 국적과 인종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
| 내 국적과 인종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을 거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
| 내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는 나의 인종/국적과 무관하다. | |
| 나는 법적, 의료적인 도움을 받을 때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 | |
| 총계 | |

② 본 체크리스트는 Peggy McIntosh의 White Privilege Checklist(백인 특권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읽은 후 체크리스트**

아래의 문장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 ☐ 다문화보육은 다문화영유아를 위한 것이다.
- ☐ 다문화보육은 다른 나라의 전통의상, 음식, 명절을 알고 체험하는 것과 관련된다.
- ☐ '한국 영유아'만 있는 어린이집에는 다문화보육이 필요하지 않다.

**함께 생각해요**

1 - 눈을 감고, 다시 한 번 '한국인'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2 - 그동안 인종, 언어, 민족, 문화적 소수자 영유아를 어떻게 부르고 있었나요?
앞으로는 어떻게 부르는 것이 좋을까요?

## 1-3. 다문화감수성

**읽기 전 체크리스트**

아래 문장들을 읽고 동의하는 이유와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 ☐ 다문화감수성은 타고나는 것이다.
- ☐ 호의적인 고정관념은 좋은 것이다.
- ☐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영유아의 언어발달이 느린 이유는 이중언어 사용 때문이다.

### 1) 다문화감수성이란?

요즘 뉴스나 일상생활에서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성인지감수성, 다문화감수성, 인권감수성 같은 단어들이 그러합니다.

**감수성**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13]

**Sensitivity**

1. (남의 기분을 헤아리는 데) 세심함
2. (사람이) 예민함[민감함] (그래서 상처를 잘 받음)[14]

다문화감수성은 "다양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문화적 맥락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정서적 준비 상태의 민감한 정도"를 의미합니다(이규림, 2011, p. 8). 다시 말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말이나 행동으로써 상대에게 실례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세심하게 헤아리고 배려하는 능력을 의미하지요. 이러한 태도는 상대의 문화를 존중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단계별 다문화감수성[15]**

**1단계: 무지**
이 단계는 다름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내가 아는 방식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말이나 행동이 타인에게 실례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2단계: 민감**
이 단계는 다름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문화 간 차이가 있음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나의 말이나 행동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자각하고 있지만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3단계: 능숙**
이 단계에서는 다름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다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보다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의 장점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의식적으로 말과 행동을 조심함으로써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4단계: 숙달**
이 단계에서는 문화 간 차이에 대해 완전하게 인지하고, 다름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의식적으로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일상 속 말과 행동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습니다.

다문화감수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나의 언어, 문화만 옳다는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입니다. 자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타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질 때 다양한 문화 사이에 벽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문화감수성이 결여된 경우, 나와 인종, 언어, 민족,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차별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 2) 나의 다문화감수성 확인하기

나의 다문화감수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래의 표[16]를 보며 확인해봅시다.

| 1. 전혀 그렇지 않다 | 2.그렇지 않다 | 3. 보통이다 | 4. 그렇다 | 5.매우 그렇다 |
|---|---|---|---|---|

### <다문화감수성 지수 측정표>[9]

| 문항 | 1 | 2 | 3 | 4 | 5 |
|---|---|---|---|---|---|
| 우리 반에 인종, 언어, 민족, 문화적으로 다양한 영유아가 있어서 즐겁다. | | | | | |
|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영유아·보호자를 섣불리 판단하기 전에 기다리며 살펴보는 편이다. | | | | | |
|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영유아·보호자에게 개방적이다. | | | | | |
|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영유아·보호자와 교류할 때 그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준다. | | | | | |
|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영유아·보호자를 대해야 하는 상황들을 피하지 않는다. | | | | | |
|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영유아·보호자와 교류할 때 내가 그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언어 혹은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보여준다. | | | | | |
|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영유아·보호자와 내가 다르다는 사실을 즐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 | | | | |
|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영유아·보호자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 | | | | |
| 나와 다른 문화의 영유아·보호자가 가진 가치관을 존중한다. | | | | | |
|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영유아·보호자가 행동하는 그들만의 방법을 존중한다. | | | | | |
| 나와 다른 문화의 영유아·보호자의 의견을 수용한다. | | | | | |
| 나의 문화만큼 남의 문화도 좋다고 생각한다. | | | | | |
| 나와 다른 문화의 영유아·보호자와 교류하는 데 상당히 자신이 있다. | | | | | |
|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영유아·보호자와 교류할 때 어떤 소재로 대화할지 잘 알고 있다. | | | | | |

| 문항 | 1 | 2 | 3 | 4 | 5 |
|---|---|---|---|---|---|
|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영유아·보호자와 교류할 때 얼마든지 사교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 | | | | |
|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영유아·보호자와 교류할 때 의미 있다고 느낀다. | | | | | |
|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영유아·보호자와 교류할 때 매우 날카롭게 그들을 관찰한다. | | | | | |
| 나와 다른 문화의 영유아·보호자와 교류할 때 그들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고자 노력한다. | | | | | |
| 나와 다른 문화의 영유아·보호자와 교류할 때 그들이 보여주는 미세한 표현들을 잘 알아챈다. | | | | | |
| 나와 다른 문화의 영유아·보호자와 교류할 때 그들이 나의 말이나 행동으로 불쾌하지 않을지 고민한다. | | | | | |

다문화감수성은 알아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표를 통해 알아본 나의 다문화감수성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다문화감수성은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다문화교육을 통한 꾸준한 훈련과 의식적 노력이 더해져 서서히 높아집니다. 영유아의 다문화감수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영유아의 다문화감수성을 높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③ 본 측정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다문화감수성 지수 측정표를 바탕으로 일부 질문을 수정·재구성한 것입니다.

### 3) 우리 어린이집의 다문화감수성 높이기

#### (1)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없애기

교사인 나와 영유아의 다문화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일상 속에 편재하는 크고 작은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을 파악하고 이것들을 하나씩 없애는 것입니다.

**선입견(prejudice)**. 한자로는 먼저 선(先), 들어서다 입(入), 볼 견(見)이 합해진 글자이고, 영어로는 '먼저'를 뜻하는 pre와 '판단(judge)'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judice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즉,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들어서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을 의미하지요("선입견," 2021)[17].

**"흑인은 무섭다."**

선입견은 실제 경험이나 이성적인 이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막연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의해 형성이 됩니다.

**편견(bias)**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으로, "특정 집단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태도"(박지선, 2014)[18]를 뜻합니다.

**"이주민은 학력이 낮고 가난하다."**

편견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문제에 대해 한쪽 면만 보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사고와 시각을 편협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주로 이런 편견에 의해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고정관념(stereotype)**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과잉 일반화 또는 부정확하게 일반화된 신념"("고정관념," 2000)[19]으로, "특정 개인의 독특한 개성이나 개인차 혹은 능력을 무시한 채, 단순히 그 개인이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개성이나 특성, 능력을 특정하게 또는 특정 범주로 귀속시키는 관념이나 기대"(곽호완 외, 2008)[20]를 뜻합니다.

### "동양인은 수학을 잘한다."

흔한 고정관념 중 하나가 동양인은 수학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인과 같은 동양인의 입장에서 그리 기분 나쁜 고정관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고정관념이 동양인에게 좋게 작용할까요? 숫자라면 머리가 지끈지끈한 누군가는 노력해도 나오지 않는 결과에 대해 공부에 관심이 없는 것이라 오해 받을 수 있고, 수학을 좋아하는 누군가는 자신의 노력과 재능으로 얻은 결과에 대해 인종적 특성에 의한 당연한 결과라 저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언뜻 나쁜 의미가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고정관념 역시 누군가를 온전히 이해하려는 노력을 저지하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상대에 대해 쉽게 판단하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말과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① 누군가에 대해 무심코 떠오른 생각, 혹은 내뱉은 말이 근거가 있는 말인지, 어떠한 연유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인지 수시로 질문해보세요.

**"나는 살면서 흑인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데 왜 흑인들은 무섭다고 생각했을까? 어떤 이유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됐을까?"**

② 현재 나의 생각을 형성한 외부 정보(뉴스, 영화, 유튜브, 경험담 등)가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보세요.

**"나는 왜 이주민들은 다 학력이 낮고 가난하다고 생각했을까? 생각해보니, 내가 본 방송에서 나온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낡고 좁은 집에 사는 모습이었어."**

나아가, 사실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려보세요④[21].

③ 어린이집에서 인종, 언어, 민족, 문화적 소수자 영유아와 보호자를 대할 때, 나의 말과 행동이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적으로 점검해보세요.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될 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영유아와 보호자를 보는 시각이 넓어짐은 물론이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이 무럭무럭 자라날 것입니다.

④ 한국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온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고학력자(대학교 졸업 이상)의 비율이 약 74.5%로, 한국인의 고학력 비중보다 약 15%가 더 높다고 합니다(송현숙, 박은하, 2019년 1월 28일).

### (2) 이중언어가 좋은 거라고요?

**"가정에서 모국어를 사용해서 아이의 언어 발달이 늦어요."**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영유아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언어 지연'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중언어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때문입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 중인 나은이를 아시나요? 한국어, 스페인어, 독일어, 영어 4개 국어를 유창하게 해서 화제가 되었었죠. 그렇다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똑같이 부러운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왜 다른 마음이 드는 걸까요?

이중언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언어는 동경하고 배우면 유용할 것이라 생각하는 반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의 언어는 한국어만큼 중요한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중언어 혹은 다중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그 언어가 무엇이든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영유아의 경우, 집중력, 창의성, 문제해결 능력 및 다양한 사람과 정보에 대한 개방성 등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Marcos, 1998[22]; Paradis, Genesee, & Crago, 2011[23]). 또한 정서적 활동을 담당하는 우뇌와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좌뇌가 고르게 사용되는 영유아기에 언어를 습득할 경우, 언어가 쓰이는 상황 및 감정 등을 통합하여 언어를 습득하게 되어 더 정교한 언어 사용이 가능해집니다(Nacamulli, 2015)[24]. 그런데 우리는 왜 이중언어 사용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마도 한국어 발달이 더딜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 것입니다. 그로 인해 교사인 나와의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중언어 사용자가 많은 미국에서도 이중언어가 언어 발달 지연의 원인이라는 믿음이 팽배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다문화영유아의 모국어를 '제거'하고 주류 언어만을 주입하는 교육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문화영유아의 한국어 능력이 빠르게 발달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이러한 동화주의적 사고에 근거한 편견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 10년간 수많은 학자들이 이중언어는 언어 발달을 지연시키지 않는다는 꾸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반에 있는 아이는 진짜로 언어가 느린 걸요."**

그럼에도 내가 어린이집에서 만난 영유아가 언어 지연 증상을 보이는 것 같을 때, 답답하고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언어 환경에 있는 영유아의 언어 발달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 <언어 발달 지표>[25]

| 말하기 능력 | 한 가지 언어에 노출된 영유아 | 이중언어에 노출된 영유아 |
|---|---|---|
| 첫 단어를 말함 | 12개월 | 12개월 |
| 하나의 명령어로 된 간단한 지시를 따름(일어서, 앉아 등) | 24~30개월 | 24~30개월 |
| 두 개의 단어를 조합하기 시작 | 30~36개월 | 36~40개월 |
| 다양한 형태의 동사를 사용하기 시작(먹고 있어, 먹었어 등) | 40~48개월 | 36~40개월 |
| 언제? 어디서? 등과 같은 질문에 대답 | 36~48개월 | 54~60개월 |

### <어휘 발달 지표>[26]

| 월령 | 습득 어휘수 |
|---|---|
| 12개월 | 영유아가 평소 자주 접한 사물, 행동 등과 관련한 첫 단어를 말하기 시작 |
| 15개월 | 4~6개 어휘 |
| 18개월 | 20~50개 어휘 |
| 24개월 | 200~300개 어휘 |

이중언어 환경에 노출된 영유아는 한 가지 언어에 노출된 영유아보다 소화해내야 하는 단어, 문법, 언어 체계의 양이 절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중언어 환경에 노출된 영유아의 언어 발달이 상대적으로 더 느리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영유아의 언어 발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소수자 보호자의 모국어와 한국어 발달이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유아의 언어 발달 능력이 또래와 비교하였을 때 8~15개월 범주 내의 지연이라면 기다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중언어를 이해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이중언어가 언어 발달 지연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언어 발달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풍부한 언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언어든, 두 가지 이상의 언어든, 양질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것이 영유아의 언어 습득 능력 향상을 촉진시킵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보호자가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언어(즉, 모국어)를 쓰라고 권장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궁금해요 !?**

**이중언어 환경에 있는 영유아의 언어 발달 지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영유아의 언어 지연은 보호자, 교사, 의사 등 영유아를 집중해서 관찰하는 사람이 판단하였을 때 영유아가 또래에 비해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지나치게 적거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의 내용이 적을 때 일차적으로 언어 지연의 가능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는 한 언어든 이중언어에 노출이 되었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중언어에 노출된 영유아가 언어 지연이 있을 경우, 모국어와 한국어 두 언어 모두 지연이 나타납니다. 만약 한 언어는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언어 발달이 진행되고 있으나, 다른 한 언어의 발달이 더딘 경우에는 언어 지연이라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언어 지연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영유아를 관찰했음에도 언어 지연이 의심될 때는 최대한 빨리 전문 언어치료사에게 연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중언어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언어치료사를 찾는 것을 추천합니다.

### (3)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기

일상 속에 편재한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영유아가 각자에게 편안한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환경을 만들어 준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유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일일 것입니다. 나와 언어, 문화가 다른 영유아라 막연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대신, 한 걸음 더 다가가 귀 기울여 영유아를 알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 읽은 후 체크리스트

아래의 문장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 ☐ 다문화감수성은 타고나는 것이다.
- ☐ 호의적인 고정관념은 좋은 것이다.
- ☐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영유아의 언어 발달이 느린 이유는 이중언어 사용 때문이다.

**함께 생각해요**

다문화감수성은 나와 인종, 언어, 민족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할 때만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 반에 울산에서 전학 온 애가 사투리 엄청나게 쓰는데 노래 부를 땐 안 쓰더라. 원래 시골 사람들 노래할 땐 사투리 안 써?"⑤**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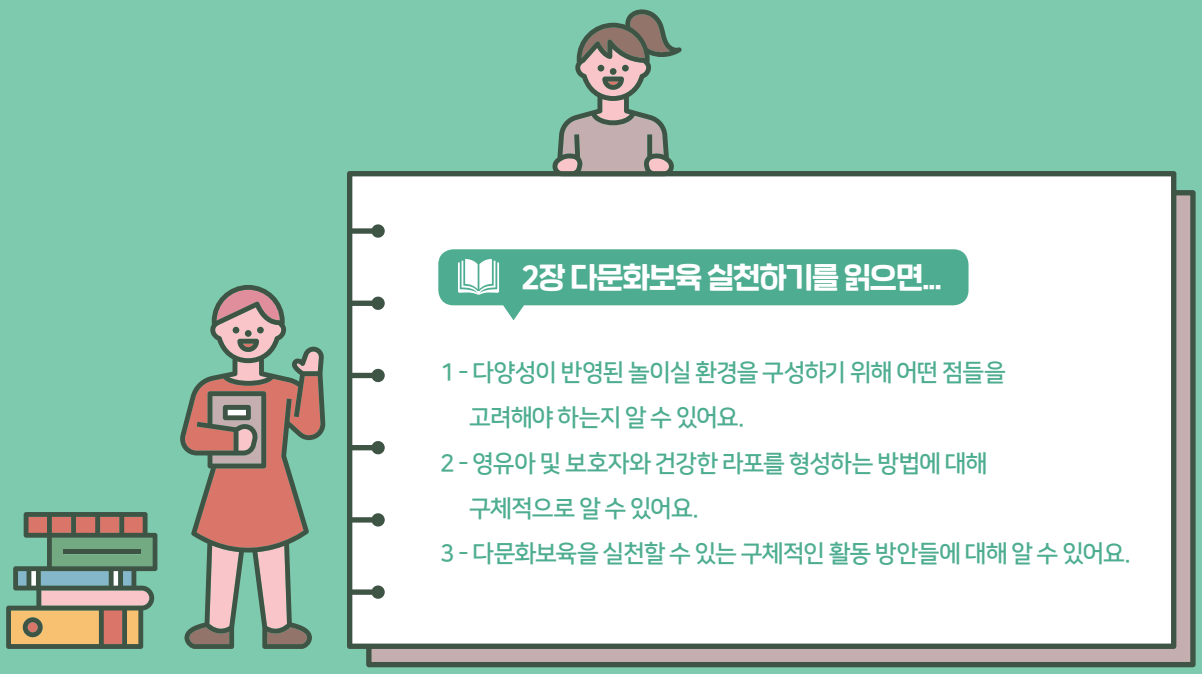
위 같은 발언 역시 사투리를 쓰는 지역과 사람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기인한 것으로, 다문화감수성이 부족하기에 생긴 결과입니다. 나와 다른 이를 편견과 고정관념에 의해 쉽게 규정하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대가 어떻게 느낄지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일상 곳곳에 스며있는 다양한 문화를 발견하고 다문화감수성이 높은 대화를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⑤ "노래할 땐 사투리 안 쓰냐고?...지방말투 차별 마세요"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2장

"다문화보육 실천하기"



## 2장 다문화보육 실천하기를 읽으면...

1 - 다양성이 반영된 놀이실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2 - 영유아 및 보호자와 건강한 라포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3 - 다문화보육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 방안들에 대해 알 수 있어요.

## 2-1. 다문화보육 교수법

다문화보육이 무엇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는 여전히 막막하신가요? 다문화보육을 실천하는 교수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6]

먼저,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수법(Culturally Relevant Teaching)**은 영유아의 다양한 문화, 역사적 배경을 활동에 활용함으로써 영유아가 '인지, 사회, 정서, 정치적으로' 자신감을 얻고, 이로 인해 모든 영유아가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리게 하는 것 입니다(Ladson-Billings, 1994, p. 13)[28].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수법은 활동, 교육과정, 교육내용 등이 모두 주류 집단에 의해 구성된 것이며, 주류 집단의 문화, 언어, 지식, 정보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회적 소수자는 사회적 성공에서 배제된다고 주장합니다.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 영유아의 문화, 언어, 역사적 배경 등을 활용하여 주류 집단의 지식, 정보를 효과적으로 습득하게 독려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에서 성공하게 도와준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성공을 위해 한국어 사용이 필수인 한국사회에서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영유아에게 사회·문화·역사적으로 익숙한 정보나 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문화감응교육법(Culturally Responsive Pedagogy)**은 주류 집단과 사회적 소수자 영유아의 문화 차이로 인해 학업적 격차가 벌어진다는 시각을 버리고 영유아의 문화를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다양한 영유아의 문화, 기존 경험, 행동 양식 등을 활용하여 배움의 과정을 보다 의미있고 효과적으로 와닿게 하는 것(Gay, 2000)[29]이 그 목적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소수자 영유아의 문화, 언어, 행동 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⑥ 제시된 교수법들은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다문화보육을 보다 효과적이고 의미있게 실천하기 위해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발전되어 온 개념들입니다.

**문화를 유지하는 교육법(Culturally Sustaining Pedagogy)**은 세 가지 교수법 중 가장 최근에 등장한 개념입니다. 이는 영유아의 다양한 문화를 인지하고 이를 교육에 활용해야 한다는 기존의 관점에서 나아가, 다중언어와 다문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영유아가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고수하게 해야 한다는 교육법(Paris & Alim, 2014)[30]입니다. 교사가 적극적으로 다양한 언어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비슷한 듯 다른 이 교수법들은 결국 배움의 과정에서 영유아의 '문화'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환경을 구성하는 것, 활동 자료로 활용하는 내용, 놀이실에 비치된 책이나 놀이감 등에 모두 다양한 문화를 반영함으로써 모든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소속감을 느끼고 의미 있는 배움의 시간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은 우리들로 하여금 인종, 언어, 민족, 문화적으로 소수자 집단에 해당하는 영유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OO는 어머니가 집에서 베트남어를 쓰셔서 한국말을 잘 못해."**
**"OO는 한국어를 못해서 놀이 집중도가 떨어져."**

이러한 관점은 영유아의 장점을 인지하고 그것을 북돋아주기 보다 단점만 눈에 보이게 만듭니다.

또한, 영유아가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나의 교수법 때문이 아니라, 영유아의 문화 때문이라 탓하게 되지요.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수법, 문화감응교육법, 문화를 유지하는 교육법은 문화적 다양성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며, 놀이에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위의 세 가지 교수법을 바탕으로 교사가 해야 할 일은,

**1. 영유아의 정체성 확인시켜주기:** 어린이집 환경 구성 및 놀이 주제 선택 시 모든 영유아의 문화적 정체성 반영하기
**2. 영유아와 '라포⑦311' 형성하기:** 영유아와 따뜻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영유아의 목소리가 주축이 되는 어린이집 만들기
**3. 영유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영유아의 특징 및 장점 찾기

이제 다문화보육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오시나요? 먼저 놀이실을 함께 둘러봅시다.

⑦ 라포(rapport)는 "두 사람의 인간 사이에서 마음이 통하고, 따뜻한 공감이 있으며 감정교류가 잘 되는 것"입니다.

## 2-2. 다문화보육 실천하기

### 1) 놀이실 환경 구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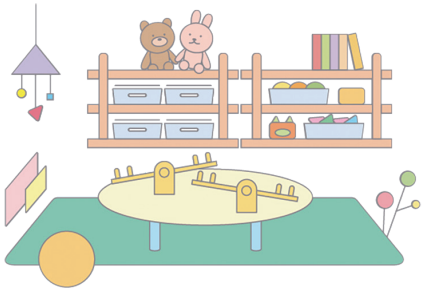
다문화감수성이 높은 놀이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반영된 놀이실 환경을 구성해야 합니다.
다양성이 반영된 놀이실 환경이란,

① 편견 및 고정관념을 깨거나 바로 잡는 색상 및 이미지(그림, 사진 등)로 구성된;
② 다양한 놀이 영역을 자유롭고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구성된;
③ 사회의 다양한 인종, 언어, 민족, 직업, 가족 형태, 문화 등을 반영한 교구, 교재, 놀잇감, 책 등이 준비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놀이실 환경 구성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우리 놀이실을 찬찬히 둘러보고, 내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지 살펴봅시다.

**<다양한 놀이실 환경 구성을 위한 체크리스트>**

**공간 구성**



**놀이실 및 어린이집 공간이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놀이실 및 어린이집 공간이 다양한 목적에 따라 물리적으로 명확히 구분 되어 있는가?
(예: 조리실, 화장실, 유희실, 도서 공간 등)

☐ 책상, 놀이 공간 등이 영유아의 다양한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되어 있는가?

☐ 놀이 공간이 모든 영유아의 다양한 흥미를 자극하도록 배치되어 있는가?
(예: 역할놀이 영역이 지나치게 고정관념적인 여자 영유아의 흥미 위주(분홍색, 소꿉놀이, 화장대 등)로 구성된 것은 아닌가?)

**놀이실 및 어린이집이 다양한 색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내가 사용하는 색이 영유아의 고정관념을 강화하지는 않는가?
(예: 여자-분홍, 남자-파랑)

☐ 내가 사용하는 색이 지나치게 '부드러움'을 강조하거나 특정 색의 사용을 지양하지는 않는가?
(예: 원색 보다 파스텔톤 선호, 검은색, 남색, 밤색 등 어두운 색 사용 지양 등)

**놀이실 및 어린이집이 다양한 이미지(그림 및 사진)를 포함하고 있는가?**

☐ 내가 사용하는 그림, 사진이 고정관념을 강화하지는 않는가?
(예: 타민족 묘사 시 전통의상을 입고 있는 그림만을 사용)

☐ 내가 사용하는 그림, 사진이 다양한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가?
(예: 다양한 가족 형태(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동성부모 가정, 반려견이 있는 가정 등), 인종, 직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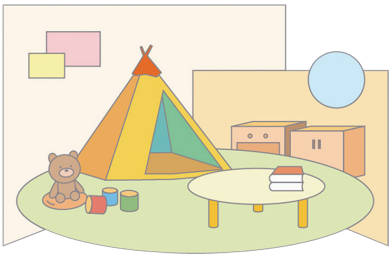
**놀이실 및 어린이집에 영유아의 모습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가?**

☐ 영유아와 보호자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가?

☐ 영유아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가?

☐ 영유아의 활동사진이 전시되어 있는가?

## 교재, 교구, 놀잇감



**놀이실에 비치된 교재, 교구, 놀잇감이 영유아의 다양한 사고를 촉진하는가?**

☐ 놀이실에 비치된 교재, 교구, 놀잇감의 종류가 다양한가?

☐ 놀이실에 비치된 교재, 교구, 놀잇감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

☐ 놀이실에 비치된 교재, 교구, 놀잇감이 다양한 흥미 및 발달영역을 자극하는가?
(예: 소·대근육 사용 촉진)

**놀이실에 비치된 교재, 교구, 놀잇감이 다양한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가?**

☐ 교재, 교구, 놀잇감이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가?
(예: 다양한 인종, 민족, 직업, 가족 형태, 나이, 장애, 옷차림, 생활방식 등을 반영한 인형, 교재 등)

☐ 놀이실에 비치된 교재, 교구, 놀잇감이 다양한 성역할을 반영하고 있는가?
(예: 요리하는 아빠, 경찰 엄마)

☐ 놀이실에 비치된 교재, 교구, 놀잇감이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강화하지는 않는가?

## 도서[8]

**책의 내용이 영유아에게 적합한가?**

☐ 영유아에게 적합한 단어나 문장이 사용되었는가?

☐ 영유아의 흥미를 자극하는 다양한 그림체와 색이 쓰였는가?

☐ 책의 줄거리가 잘못된 감정이나 행동을 부추기지는 않는가?
(예: '좋아하면 괴롭혀도 된다' 혹은 '사랑하면 참아야 한다' 등과 같은 그릇된 메시지 전달)

**책의 내용이 다양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강화하지는 않는가?**

☐ 등장인물이 인종, 민족, 문화, 성 고정관념을 강화하지는 않는가?
(예: <미운아기오리>처럼 '못생긴' 역할은 검은색, '예쁜' 역할은 흰색으로 묘사 등)

☐ 등장인물이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가?

☐ 책의 줄거리가 인종, 민족, 문화, 성 고정관념을 강화하지는 않는가?
(예: 사회적 소수자가 측은지심을 유발하는 대상으로만 묘사)

⑧ 2장 내용 중 "그림책 읽고 이야기 나누기"에 소개된 그림책 목록을 참고하세요.

**책의 줄거리가 차별이나 편견에 대항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 영유아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등장인물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인물로 묘사되어 있는가?

## 함께 실천해요

**<다양한 놀이실 환경 구성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우리 놀이실의 모습을 그리거나 작성해보세요.**

## 2) 영유아·보호자와 라포 형성하기

다문화보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및 보호자와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종, 언어, 민족, 문화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와 주류 집단에 속하는 교사가 서로 존중, 배려, 신뢰, 협력할 때 비로소 차별·편견이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amsey, 2004)[32]. 인종, 언어, 민족, 문화적으로 소외된 영유아의 보호자와 라포를 형성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보호자와 라포 형성하기

■ 보호자의 모국어로 간단한 인사말을 익혀 교사-보호자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9]

■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보호자에게 자녀와 소통할 때 모국어 사용 적극 권장하기

■ 영유아의 어린이집 생활 관련 정보 전달 시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 보호자의 의사 물어보기
① 앱/서면 가정통신문을 통해 전달
② 등·하원 시 대화(대화 시 천천히 말하는 것을 선호하는지 등도 물어볼 것)
③ 보호자와 합의한 특정 시간에 통화
④ (한국어가 능숙한)특정 보호자를 통해 전달
⑤ 통역이 가능한 사람과 함께 대화

■ 보호자가 어린이집/교사에게 기대하는 점이 무엇인지 물어보기
① 영유아를 대함에 있어 주의할 점은 없는지 물어보기(특정 음식 선호/거부, 계절보다 시원한/추운 옷차림 선호 등)
② 어린이집에서의 생활 방식과 보호자의 문화, 양육 방식이 상충하지는 않는지 대화하기
③ 영유아의 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걱정이 무엇인지 물어보기

■ 보호자의 이야기를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몸짓이나 손짓을 사용하기(눈 마주치고 이야기하기,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하기 등)

■ 보호자를 놀이실에 초대하여 가족 구성, 문화, 가정에서 즐겨 듣는 노래, 영유아와 즐겨 읽는 그림책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 갖기(특정 보호자만을 초대하는 것 역시 차별적 행위이므로 모든 영유아의 보호자가 참여하는 활동으로 계획하기)

교사가 보호자와 라포를 형성함에 있어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비록 인종, 언어, 민족, 문화적 차이가 있을지라도 교사와 보호자 모두 영유아의 행복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생활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종, 언어, 민족, 문화적으로 소외된 영유아와 라포를 형성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영유아와 라포 형성하기

- '선생님은 너를 많이 좋아해,' '네가 우리 반에 있어서 감사해,' '우리 반에 온 걸 환영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눈을 자주 마주치고, 많이 웃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는 등 긍정적인 몸짓, 손짓 많이 해주기(보호자가 문화적으로 불편해하는 스킨십은 없는지 미리 물어보기)
- 영유아가 한국어를 완전히 이해하거나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너도 지금 알아들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 나도 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단다.'라는 마음이 전해지도록 눈 마주치며 많이 이야기 해주기
- 영유아의 이름이 전형적인 한국 이름이 아니라면, 보호자를 통해 영유아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법을 익히기
- 영유아가 좋아하는 것(노래, 그림책, 애착인형/이불, 만화 캐릭터, 색, 음식 등)이 무엇인지 자세히 관찰하고 놀이 중에 언급하도록 노력하기(영유아가 좋아하는/싫어하는 것에 대해 보호자에게 물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
- 하루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영유아가 가정에서 읽기 좋아하는 책, 가지고 놀기 좋아하는 장난감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놀이실의 모든 영유아에게 해당)
- 영유아에 대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의식적으로 영유아의 장점을 찾으려 노력하기

영유아를 진심으로 아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다보면 어느새 교사와 영유아 사이에 긍정적이고 건강한 라포가 쌓일 것입니다.

주류 집단의 보호자에게도 우리 반에 인종, 언어, 민족,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영유아가 있음을 소개하고, 영유아와 영유아의 보호자를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를 건네 달라고 안내해 보세요. 다양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될 것입니다.

⑨ 유튜브에서 '다양한 나라의 인사법'을 검색해보세요.

## 함께 실천해요

현재 우리 반에 있는 인종, 언어, 민족, 문화적으로 다양한 영유아의 이름을 적고, 장점 5가지를 적어보세요.

| 이름: | 이름: |
| --- | --- |
| 1.<br>2.<br>3.<br>4.<br>5. | 1.<br>2.<br>3.<br>4.<br>5. |
| 이름: | 이름: |
| 1.<br>2.<br>3.<br>4.<br>5. | 1.<br>2.<br>3.<br>4.<br>5. |

### 3) 활동 구상하기[10]

다양한 문화가 반영된 놀이실 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 및 보호자와도 건강한 라포를 형성하였다면, 이미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문화보육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다문화보육을 실천하는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1) 그림책 읽고 이야기 나누기

어린이집에서 책 읽기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책의 내용이 모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책은 오히려 영유아의 편견을 조장하고 고정관념을 강화하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고르는 데 있어 교사의 비판적 시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다문화'와 관련된 주제의 책을 고를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책의 내용이나 삽화가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 주류문화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전달하지는 않는지, 책의 내용, 삽화, 전개, 구성, 주제 등이 소수자 집단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피부가 까만 친구가**
**학교에서 겪는 차별 경험에 대한 이야기"**

만약, 주류 집단 영유아가 이런 책에 주로 노출이 된다면 인종, 언어, 민족, 문화적으로 소수자에 해당하는 영유아에 대해 '나와 같은 친구'라는 인식 대신, 연민이나 동정의 감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소외된 영유아는 나의 경험과 감정이 부정적인 것에만 축소되어 묘사되는 것에 답답함과 억울함을 느낄 것입니다. 영유아와 함께 읽을 책을 고를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라면, 나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을까?***

⑩ 소개된 활동들은 내용과 범위에 따라 며칠,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쳐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될 경우, 하루 일과 중 특정 시간을 정해 매일 일정한 시간 이상을 할애해주세요.

### 좋은 다문화 그림책을 고르기 위한 체크리스트[33]

**1. 작가**

☐ 작가/삽화가가 이 책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기에 자격이 충분한 사람인가? 즉, 작가/삽화가가 책의 등장인물과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같은 인종, 국적, 종교 등)이거나 등장인물에 대해 충분히 공부를 한 사람인가?

**2. 내용**

☐ 책의 내용이 영유아에게 흥미로운가?
☐ 정확하고 사실적인 언어로 내용을 전달하는가?
☐ 역사/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정확한가?
☐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전반적인 내용의 질이 좋은 책인가?

**3. 등장인물**

☐ 실제로 존재할만한 등장인물들인가?
☐ 차별, 슬픔과 같은 부정적 경험/감정 외에 다양한 인간 보편의 감정(기쁨, 고민, 즐거움, 행복), 태도, 경험이 반영되어 있는가?
☐ 등장인물들이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나타내는가?
☐ 등장인물의 생활방식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가?
☐ 등장인물 중 사회적 소수자도 주류 집단만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가?

**4. 배경**

☐ 책의 내용·삽화가 다양한 시대와 공간을 반영하고 있는가?
☐ 도시, 시골 등의 배경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가?
☐ 문화·지리적인 배경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는가?

**5. 전개 및 구성**

☐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가?
☐ 인종, 언어, 민족, 문화, 종교로 인한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가?
☐ 영유아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나눌만한 갈등 상황이 존재하는가?
☐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해소되는가?

### 6. 주제

☐ 영유아가 함께 질문하고, 생각하고, 고려할 만한 상황, 개념, 새로운 생각들을 제공하는가?
☐ 새로운 가치관/관점을 탐색할 기회를 주는가?
☐ 교훈이 있는가?
☐ 다양한 관점과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는가?
☐ 다양한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가?

### 7. 삽화

☐ 다양한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는가?
☐ 같은 문화권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양성이 반영되어 있는가?
☐ 사람들이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가?
☐ 그림이 고정관념을 강화하지는 않는가?
☐ 그림이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

### 8. 적합성

☐ 책의 내용이 영유아 발달 과정에 적합한가?; 영유아가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
☐ 책의 내용이 개개인 영유아의 문화적 배경에 적합한가?
☐ 책의 내용이 영유아가 살고 있는, 혹은 가까이 있는 사회, 언어,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는가?
☐ 책의 내용이 의미있는 이야기 나누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책을 고르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일은 책을 의미있게 소개하는 일입니다. 영유아와 다함께 동그랗게 모여 앉아, 영유아의 일상, 관심사, 문화적 배경, 가족을 바탕으로 영유아가 책의 내용과 그림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해보세요. 책을 읽어주는 동안, 책의 내용·그림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하고, 우리 반 영유아의 특성과 연결지어 보세요. 영유아가 책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책을 읽어준 후에는 영유아와 책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등장인물의 감정, 책의 내용(3~4가지 정도의 큰 사건 위주로 요약), 생각해볼 거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과정을 통해 영유아의 다문화감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⑪ 본 체크리스트는 Harper & Brand(2010)의 Checklist for Selecting and Evaluating Multicultural Picture Storybooks을 번역 및 수정한 것입니다.

## 다문화 그림책 추천 목록[15]

### 영아용

**간질간질**[12]

헬린 옥스버리 글·그림, 시공주니어

아장아장 아기 그림책 시리즈 중 하나. 다양한 신체활동을 동일한 어미, 어구의 반복 사용, 의성어·의태어로 표현한다. 그림책 속 인종, 민족, 성별이 다양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듣고, 따라하면서 자연스럽게 차이에 대한 존중을 배울 수 있다.

⑫ 같은 작가의 책으로 『짝짝짝』, 『꽈당』, 『자장자장』이 있습니다.

**괜찮아**

최숙희 글·그림, 웅진주니어

이 책은 개미, 고슴도치, 뱀, 기린 등 영유아에게 친숙한 동물들의 생태 특징을 통해 우리 모두 생김새는 다르지만 각자만의 장점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표현의 사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유아에게 다양함을 인지시킬 수 있다.

**엄마를 잠깐 잃어버렸어요.**

크리스 호튼 글·그림, 보림큐비

나무 위 집에서 떨어져 엄마를 잃은 아기 부엉이가 친절한 다람쥐 아줌마의 도움을 받아 엄마를 찾는 이야기. 책 속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 다양한 동물들의 생김새, 털 색깔, 사는 곳과 먹이를 배울 수 있다. 또, '귀가 쫑긋'과 같이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 모두가 비슷하면서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친구 친구**

김복태 글·그림, 보림

엉금엉금 거북이와 깡충깡충 토끼. 큰 코끼리와 작은 다람쥐. 까만 곰과 하얀 곰. 서로 달라도 즐겁게 함께 노는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다양하고 나와 다른 친구들이 많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다.

## 유아용

### 깜장 병아리

이기규 글,
고은채 그림,
여우고개

푸름이네 농장에서 병아리들이 태어났다. 그런데 노란 병아리들 사이로 단연 눈에 띄는 병아리 한 마리. 바로 검은 석탄 덩어리처럼 시커먼 깜장 병아리다. 깜장 병아리의 등장에 깜짝 놀란 노란 병아리들이 넌 누구냐고 묻자 깜장 병아리가 무척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한다. "나? 나는 병아리야." 노란 병아리들은 혼란에 빠지지만 우여곡절 끝에 깃털 색깔은 달라도 모두 같은 병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요시타케 신스케 글·그림,
토토북

온갖 별을 조사하고 다니는 일을 하는 우주 비행사. 그가 도착한 별들은 당연한 '나'가 당연하지 않은 온통 낯선 세계다. 내가 살던 공간에서 '정상'이었던 나는 다른 세상에서는 드문 존재다. 서로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이지만, 닮은 점을 보면 반갑고, 다른 점을 만나면 신기해하면서, 우리 모두 서로를 존중하는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

### 살색은 다 달라요

캐런 카츠 글·그림,
보물창고

레나의 살색은 계피 같은 적갈색이다. 레나는 화가인 엄마에게 갈색이면 다 똑같은 갈색이지 적갈색은 무엇이냐고 묻는다. 엄마는 여러 가지 물감을 알맞은 비율로 섞으면 레나의 살색과 같은 적갈색을 만들 수 있다고 알려 주면서, 조금씩 빛깔이 다른 여러 가지 갈색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레나는 엄마와 산책을 하면서 수많은 이웃과 친구들을 만난다. 그리고 그들의 살색이 땅콩버터 잼 같은 연한 황갈색부터 생일 파티에서 먹었던 초콜릿빛 갈색, 낙엽 같은 다갈색, 캐러멜맛 사탕처럼 연한 갈색 등 모두 다른 데다 저마다 아름다운 빛깔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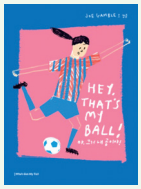
### 마들렌카[13]

피터 시스 글·그림,
베틀북

뉴욕에 살고 있는 마들렌카. 태어났을 때부터 줄곧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마들렌카는 어느 날 앞니가 흔들리는 걸 느끼고, 이 기쁜 소식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집을 나선다. 마들렌카는 동네 골목에 모여 있는 가게를 찾아다니며, 주인 아저씨와 아주머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리고 모두들 마들렌카에게 각 나라의 언어로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⑬ 같은 작가의 책으로 『마들렌카의 개』, 『마들렌카 축구 스타가 되다』가 있습니다.

### 야, 그거 내 공이야!




조 갬블 글·그림,
후즈갓마이테일

축구를 좋아하는 소녀 앨리스는 마당에서 공을 너무 세게 차는 바람에 공을 잃어버리고 만다. 앨리스는 공을 찾아 공원, 해변, 시내까지 나가게 되고, 앨리스의 공을 봤다는 아이의 말을 따라 커다란 경기장으로 향하게 된다. 이 책은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축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축구를 즐기는 다양한 문화를 보여준다.

### 스파이더맨 가방을 멘 아이

조르지아 베솔리 글,
마시밀리아노 디 라우로 그림,
머스트비

책가방을 사 주겠다는 이모의 말에 기뻐하며 스파이더맨 가방을 고르는 클로에. 하지만 이모는 클로에의 엄마, 아빠한테 차례로 전화를 걸어 진짜 스파이더맨 가방을 사 줘도 되는지 거듭 묻는다. 가방 가게 아저씨도 클로에에게 묻는다: "네가 남자애들 가방을 산다는 거니?" 여기에 클로에는 "스파이더맨은 우리 모두의 거예요!"라고 대답한다.

## 유아용

### 콩아지와 다람이[14]

아키야마 타다시
글·그림,
키득키득

콩아지는 콩알만한 송아지다. 그리고 콩아지에게는 쌀알만한 친구, 다람이가 있다. 콩아지와 다람이는 겉모습도, 생각도, 할 수 있는 일도 모두 다르지만 배려하고 맞춰가며 서로에게 소중한 친구가 되어준다.

⑭ 같은 작가의 책으로 『내 이름은 콩아지』, 『콩아지와 뚱아지』, 『콩아지와 옹아지』가 있습니다.

### 그레이스는 놀라워!

메리 호프만 글,
캐롤라인 빈치 그림,
시공주니어

그레이스는 이야기를 무척 좋아해서 많은 이야기를 연극으로 꾸미고 놀기 좋아하는 소녀다. 어느 날, 학교에서 피터팬을 공연하기로 한다. 그레이스는 피터팬이 되고 싶었지만, 친구들이 여자아이어서 안된다, 흑인이어서 안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상심한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피터팬 역할을 잘 해낸다.

###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

멤 폭스 글,
레슬리 스타웁 그림,
비룡소

이 책은 인종, 성별, 국가, 민족,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그러한 평등의 가치를 통해 인류애와 박애의 정신을 우리 삶 속에 뿌리내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간결하고 리드미컬한 문장과 따듯한 그림 속에 담아낸다. 원색으로 그려진 세계 곳곳의 어린이들은 생김새와 복장은 달라도, 하나같이 환하게 미소를 띤 얼굴이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다르다고 느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아주 작은 부분일 뿐, 실은 모두 똑같은 마음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 준다.

### 온 세상 사람들

피터 스피어 글·그림,
비룡소

작가는 알록달록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그림으로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문화를 보여 준 뒤, 똑같은 색의 자동차와 건물,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한 모노톤의 삭막한 거리를 보여 줌으로써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연스럽게 알려 준다. 곱슬머리인 사람이 머리를 곧게 펴기도 하고, 곧은 머리카락을 일부러 구불구불하게 만드는 사람을 예로 들어, 절대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넌지시 이야기하기도 한다.

### 좀 다르면 어때?

이기규 글,
윤정주 그림,
웅진주니어

주인공 노마는 여자 아이 은지(성별 차이),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민우(선천적 장애), 시골에서 온 기동이(거주 지역 차이), 몸이 불편한 아람이(신체 장애), 네팔에서 온 미누(다문화 가정)를 처음 만났을 때, 자신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낯설고 이상하게 여긴다. 하지만 함께 배우고, 아는 것을 나누고, 도와주고, 즐기면서 어느새 친구가 된다. 이 책을 읽는 아이들은 이야기를 따라가며 다르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어 함께한다면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음을 느끼게 된다.

### 그냥 물어봐!

소니아 소토마요르 글,
라파엘 로페즈 그림,
불의여우

작가는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차별의 시선, 남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며 받아야만 했던 오해, 그리고 그러한 시선에 당당하게 맞서 살아온 경험을 녹여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멋진 것'이라는 메시지를 사려깊게 전한다. 당뇨, 보행 장애, 시·청각 장애, 난독증, 자폐성 장애, 말더듬증, 투렛증후군, ADHD, 음식 알레르기, 다운증후군 등 12가지 '특별한' 증상들에 대한 질문과 친절한 설명을 제시하고, 누군가 다른 행동을 하고 왜 그런지 궁금할 때면 "그냥 물어보는 것"(Just ask!)이 서로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한다.

## 유아용

### 우리 개를 찾아주세요

에즈라 잭 키츠 글·그림,
베틀북

후아니토는 푸에르토리코에서 대도시 뉴욕으로 이사온지 이틀만에 오랜 친구인 페피토를 잃어버린다. 낯선 도시, 게다가 스페인어밖에 할 줄 모르는 후아니토였지만 창 밖만 바라보고 기다리기 보다는 직접 찾아 나서기로 마음을 먹는다. 언어는 달랐지만, 다양한 인종과 국적을 가진 낯선 사람들은 모두들 후아니토를 도와주고 이들의 노력 덕분에 후아니토는 사랑하는 개 페피토를 찾는다.

### 눈을 감아 보렴!

빅토리아 페레스 에스크리바 글,
클라우디아 라누치 그림,
한울림스페셜

시각장애가 있는 형과 그의 동생은 세상을 느끼는 방법이 다르다. 형은 동생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눈으로만 보지 말고 마음으로 느끼고, 코로 맡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라고 한다. 동생은 처음에는 형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이내 눈을 감고 온 몸으로 느껴지는 수많은 감각들을 느끼게 된다.

### 세 바퀴로 걷는 염소 조이

페리둔 오랄 글·그림,
한울림스페셜

어느 봄날 태어난 염소 조이는 앞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나 걷지를 못한다. 목동은 조이를 위해 세 바퀴 자전거를 만들고, 조이는 이 자전거를 이용해 걷기 시작한다. 혼자 걸을 수 있게 된 후로, 조이는 여느 염소와 같이 당당하고 자유롭게 성장한다.

### 엄마랑 아빠랑 난 달라요

안 에르보 글·그림,
한울림어린이

자아개념이 발달함과 동시에 타인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며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알게 되는 유아기 모습을 반영한 책. 늑대, 병아리, 토끼 등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해서 '나는 엄마 아빠와 다르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아빠는 엉뚱하고 엄마는 멋쟁이지만 나는 엉뚱하지도 않고 멋쟁이도 아닌, 그냥 나라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동물 주인공들의 모습을 통해 영유아 스스로의 다름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훈련을 할 수 있다.

### 엄마와 나

레나타 갈린도
글·그림,
불의여우

고양이 엄마에게 입양된 강아지 아이. 강아지는 고양이 엄마와 다른 겉모습을 바꾸어 보려고도 했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엄마를 보며 "다르면 좀 어때? 엄마도, 나도,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인 걸"라고 깨닫는다.

### 엄마는 토끼 아빠는 펭귄 나는 토펭이!

에스텔 비용 스파뇰
글·그림,
키즈엠

사랑에 빠진 토끼와 펭귄은 결혼을 하고 토펭이를 낳는다. 토펭이의 모습은 토끼도 아니고 펭귄도 아닌, 토끼와 펭귄을 딱 반반씩 닮은 모습. 마을의 동물들은 토펭이의 생김새를 보고, 위험한 아이라며 함께 어울리려 하지 않는다. 곧 마을을 위협하는 늑대가 등장하고 재빠른 토끼의 다리와 펭귄의 수영실력을 가진 토펭이는 성공적으로 늑대를 따돌리고 마을의 영웅이 된다.

| 유아용 | | | |
|---|---|---|---|
| **할머니의 식탁**<br> <br>오게 모라 글·그림,<br>위즈덤하우스 | 오무 할머니는 저녁을 먹으려고 커다란 냄비에 걸쭉한 스튜를 끓인다. 스튜의 맛있는 냄새가 창밖으로, 문밖으로, 길 모퉁이를 돌아 멀리멀리 퍼져나가고, 이 냄새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오무 할머니 집 문을 두드린다. 할머니는 찾아온 사람들에게 한 국자씩 스튜를 퍼 주고 냄비는 텅 비게 되지만, 스튜를 얻어먹은 사람들은 할머니를 다시 찾아와 샐러드, 치킨, 케이크 등 작은 선물을 나눠준다. 다양한 모습의 등장인물들과 음식을 통해 나눔과 공동체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책이다. | **피부색은 달라도 우리는 친구**<br> <br>미로 프레만 글·그림,<br>키즈엠 | 타샤는 유치원에 간 첫날, 자신과 다른 피부색을 가진 친구들을 만난다. 처음에는 중국, 페루 등 타샤가 익숙하지 않은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낯설었지만, 서로의 나라를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 친구가 된다.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특징에 대해 배우고, 다양한 국적, 인종의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

⑮ 책의 줄거리는 YES24 홈페이지에 소개된 책소개, 출판사서평을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2) 이야기 인형 활용하기

다문화보육에서는 교사의 비판적 질문이 필수적입니다.

**"왜 그럴까?"**

이 짧고 단순한 질문을 통해 영유아의 일상 속에 스며있는 차별, 편견, 고정관념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영유아의 비판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아기 곰은 너무 귀여워"**
**"어여쁜 바닷속 엄마 상어/힘이 센 바닷속 아빠 상어"**

영유아가 즐겨 듣고, 읽고, 보고, 따라 부르는 동요, 그림책, 미디어 콘텐츠에는 고정관념적 요소로 가득합니다.

**"모든 아빠가 다 뚱뚱하고 모든 엄마가 다 날씬하지 않은데 이 노랫말은 왜 그럴까?"**
**"엄마는 항상 예쁘고 아빠는 힘이 세야 하는걸까?"**
**"왜 엄마 상어는 분홍색이고 아빠 상어는 파란색일까?"**

## 이야기 인형이란?

이야기 인형은 인종, 언어, 민족, 문화적으로 소외된 영유아의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다양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야기 인형의 이야기를 통해 영유아는 나와 다른 대상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공감과 존중의 과정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시작 전

이야기 인형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형의 이름, 나이, 가족 구성원, 좋아하는 놀이 등 인형에 대해 알려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이야기 인형 사용 예시

**(①이야기 인형의 정체성)** 쎄노! 내 이름은 나라야. 나는 너희들처럼 6살이야.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지금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는 모두 몽골에서 태어나셨어.

**(②이야기 인형의 생각이나 경험)** 나는 집에서 엄마, 아빠, 할머니랑 몽골어로 이야기를 해. 몽골어는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쓰는 말이랑 달라. 그래서 내가 처음 어린이집에 왔을 때 친구들이랑 선생님이 내가 모르는 말로 이야기하니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웠어. 나도 너희들처럼 <아기상어>도 좋아하고 <얼음왕국>도 좋아하는데 말이야.

**(③본인의 문화를 알려주는 인형)** 나는 며칠 후에 우스니내르(변발)를 해. 지금까지 머리를 자른 적이 없는데, 네 살이 된 걸 축하하면서 처음으로 머리를 자르는 거야. 이때 머리를 말 갈기처럼 잘라. 몽골 사람들은 말이랑 엄청 친해서 말이랑 사람이 서로 친구, 나이즈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④이야기 인형의 고민)** 그런데 내가 머리를 자르고 왔을 때 너희가 놀릴까봐 조금 걱정이야. 말과 나이즈인 것도 좋지만 너희들과도 나이즈가 되고 싶거든. 같은 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많은 우리,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 이야기가 끝난 후

이야기가 끝난 후 비판적 질문을 통해 영유아와 함께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가집니다.

질문 예: - 나라의 고민이 뭘까?
- 나라처럼 우스니내르를 한 친구를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 나라처럼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친구가 우리 놀이실에 온다면 어떨까?
- 서로 말이 다른 친구랑 어떻게 이야기 하는 게 좋을까?

교사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묵인하는 대신, 비판적 질문을 통해 영유아가 무의식 중에 고정관념을 형성하지 않게 도울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이야기 인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인형을 사용하는 것의 장점은 이야기 주인공과 내용을 우리 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 인형 '나라'의 이야기는 몽골에서 온 영유아가 우리 어린이집에 오기 전, 혹은 우리 반에 있는 몽골 영유아가 우스니내르를 하고 오기 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인형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이야기 인형에 대해 연민이나 동정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나 질문은 지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주류 집단 영유아로 하여금 인종, 언어, 민족, 문화적으로 소외된 집단에 대해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다름'이 있는 영유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를 동등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 (3) 이야기 재구성하고 역할극하기

'그림책 읽어주고 이야기 나누기'와 '이야기 인형 활용하기'가 교사 중심의 활동이었다고 하면, '역할극하기'는 영유아 중심의 활동입니다. 영유아와 함께 그림책 속 이야기, 혹은 이야기 인형의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이를 역할극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영유아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늑대와 일곱 마리 아기 염소>**[34]

어느 마을에 엄마 염소와 일곱 마리의 아기 염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가야했던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에게
"누가 와도 절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라고 주의하며 집을 나섭니다.

이 때를 틈타 아기 염소들이 사는 집을 찾은 늑대는
"엄마 왔으니 문 열어라"
고 말합니다.

아기 염소들은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란 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늑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아기 염소들이 발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까만 늑대의 발을 본 아기
염소들은 엄마가 아니란 것을 알고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늑대는 빵집에 가서 밀가루를 사 발에 바르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왔다. 문 열어다오!"
부드러운 목소리와 문틈으로 나온 늑대의 하얀 발을 본 아기 염소들은 엄마가 온 줄 알고 기뻐서 문을 열지만 그것은 시커먼 늑대였습니다. 늑대는 아기 염소들을 하나, 둘 순서대로 잡아먹었습니다. 막내 아기 염소는 벽시계 뒤에 숨어 간신히 목숨을 구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엄마 염소는 막내 염소로부터 아기 염소들이 늑대에게 잡아먹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화가 난 엄마 염소는 배가 불러 잠이든 늑대를 찾아가 가위로 늑대의 배를 자르고 아기 염소들을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늑대의 뱃속에 돌을 가득 집어넣고 실과 바늘로 꿰맨 후 도망갑니다.

눈을 뜬 늑대는 목이 말라 우물로 걸어갔다가 뱃속에 있는 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우물에 빠져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늑대와 일곱 마리 아기 염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쁜 역할을 하는 늑대는 '까만' '육식동물'입니다. 반면, 늑대에게 잡아먹힌 염소는 '하얀' '초식동물'이지요. 검고, 이가 날카로운 동물과 하얗고, 순한 얼굴을 한 동물의 대비는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의 모습을 임의로 규정하고, 사람의 겉모습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합니다. 아기 염소들을 위협하는 늑대와 대비되는 엄마의 모습 역시 고정관념적인 여성성을 주입합니다. 혹시 곤히 자고 있다가 배에 돌이 가득 찬 채로 우물에 빠져 죽은 늑대에게 측은한 마음을 가진 적 없으신가요? 영유아와 질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를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하얀 늑대도 있고, 회색 늑대도 있는데, 이 늑대는 왜 하필 까만색일까?"**
**"왜 염소는 잡아먹히면 안 되고, 늑대는 죽어도 되는 걸까?"**
**"늑대도 엄마나 아기가 있지 않았을까?"**
**"늑대도 염소들도 다 같이 행복할 수는 없을까?"**

재구성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영유아와 함께 대본을 쓰고 각각의 배역을 맡아 다함께 역할극을 꾸며보세요. 영유아의 비판적 사고와 다문화감수성이 훌쩍 자라날 것입니다.

### (4) 인터뷰하기

'인터뷰하기' 역시 '역할극하기'처럼 영유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다문화보육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뷰는 영유아가 '다름' 혹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질문들에 대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탐색하는 기회가 됩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과정은 영유아의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고, 주체적인 학습자의 자세를 심어줍니다. 특히, 가족, 친척, 선생님 등과 같이 영유아에게 친숙한 대상을 초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하면, 영유아의 소속감 및 자존감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놀이실 내 영유아 간 이해도도 높아집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영유아는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나아가 지역과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태도를 함양하게 됩니다(Souto-Manning, 2013)[35]. 그렇다면 인터뷰를 활용한 활동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 ① 탐구 주제 정하기

인터뷰의 주 목적은 영유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스스로 궁금증을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를 계획하기에 앞서 탐구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영유아와 함께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OOOO는 자꾸 손으로 밥을 먹어요!"**

영유아의 일상적인 말 한마디에서도 주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밥을 먹는 친구를 의아하게 생각하는 영유아와 함께 나라마다 음식을 먹는 방법이나 도구가 다름을 이야기 해주고, 다양한 식재료, 음식, 조리 도구, 식기, 식사 예절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제를 확장하여 다양한 식습관에 대해 탐구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우리 반의 화두는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주제를 정해보세요.

#### ② 인터뷰 대상자 초대하기

탐구 주제를 정한 후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색합니다. 이때, 가능하면 영유아의 일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변사람들의 지식, 경험, 정보로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고, 잘 몰랐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긍정과 존중의 태도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어린이집 조리사 선생님이 영유아가 먹는 밥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도 있고, 영유아의 보호자가 다른 나라의 쌀 음식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 ③ 인터뷰 실시하기

인터뷰 대상자와 인터뷰 일정을 잡았다면, 영유아와 함께 인터뷰를 할 때 지켜야 할 사항들을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인터뷰 대상자가 놀이실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인사를 할 것인지에서부터 질문하는 요령까지, 인터뷰 시작과 끝의 모든 과정에 대해 영유아와 미리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당일, 인터뷰 대상자가 말하는 내용은 교사가 칠판 또는 노트에 필기해 두어야 합니다. 탐구 주제의 답이 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인터뷰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필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영유아는 인터뷰 기술을 배우고, 인터뷰 대상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④ 인터뷰 내용 정리하기

인터뷰가 끝난 후에는 영유아와 함께 초기 질문과 인터뷰 내용을 취합합니다. 인터뷰 내용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었는지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빠진 내용은 없는지, 추가 인터뷰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검토합니다.

### ⑤ 마무리하기

①~④번의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며 영유아와 처음 탐구하고자 한 내용이 충분히 다뤄졌는지 확인 후 주제에 대한 탐구를 마무리 합니다. 탐구 과정에서 남겨 둔 사진, 메모 등을 모아 영유아가 볼 수 있는 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영유아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인터뷰는 없습니다. 교사와 영유아가 위 같은 탐구 과정을 반복하다보면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태도로 문제를 발견하고, 배려, 존중, 협력의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주체적인 학습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 함께 실천해요

소개된 활동은 서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그림책을 보며 이야기 나누기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역할극을 꾸며볼 수도 있고,
인터뷰 내용의 일부를 이야기 인형을 통해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반에서 활용하기 가장 적합한 활동 방법을 골라 활동 계획안을 짜 보세요.

# 3장

## "다문화보육, 아직도 궁금해요"

### 3장 다문화보육, 아직도 궁금해요를 읽으면...

1 - 소수자 영유아를 보육하며 궁금했던 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2 - 영유아와의 다문화보육을 계획하면서 궁금했던 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3 - 소수자 보호자를 마주하면서 궁금했던 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3-1. 소수자 영유아, 이것이 궁금해요.

### 1) 인지/언어 영역

**Q** 영유아가 전혀 말을 하지 않아요.

**A**

이중언어 발달 과정은 '동시적 이중언어'와 '순차적 이중언어'로 나뉩니다. 태어나자마자 두 가지 이상의 언어에 노출이 되어 각 언어에 대한 체계를 동시다발적으로 형성하는 것은 '동시적 이중언어'이고, 이미 한 언어 체계가 형성이 된 후에 제2언어를 배우는 것은 '순차적 이중언어'입니다. 이 중 순차적으로 이중언어를 습득하는 영유아의 경우, 모국어와 다른 언어를 접했을 때 새로운 언어를 파악하느라 말을 하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를 '무성(無聲)의 기간(silent period)'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은 영유아가 언어를 습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기간에 교사는 영유아에게 다양한 언어 자극을 줌으로써 이중언어 발달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놀이를 하는 동안 사물, 행동 등에 대해 다양한 단어, 표현,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해 이야기 해주세요. 반복해서 이야기 해주는 것은 이중언어 습득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교사가 영유아의 모국어 단어나 표현을 아는 경우, 놀이나 일상생활에서 두 언어를 모두 사용해 이야기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 짜오[chao]!" "고맙습니다. 시에시에[xie xie]" 같이 짧은 표현이어도 좋습니다. 언어에 대한 노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유아는 효과적으로 언어를 습득하게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모국어 사용을 독려해주세요.

보통 무성의 기간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까지 지속됩니다. 만약 영유아가 6개월 이후에도 말을 하지 않고, 모국어·이중언어 모두를 말하지 않으며, 지나치게 내성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보호자와 상의 후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Preston, 2014)[36].

⑯ 이 장에 포함된 질문들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운영한 2021년 다문화 보육과정 컨설팅에서 취합한 교사들의 실제 질문을 바탕으로 하되, 본 자료의 내용에 적절하도록 단어 및 표현 등이 포괄적인 방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Q** 영유아가 한국어를 잘하지 못할 때, 어떻게 소통해야 하나요?

**A**

'언어'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생각될 때, 신생아의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또는 뱃속에서부터 끊임없이 아이에게 말을 겁니다. 신생아가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서 일까요? 신생아가 말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일까요? 아직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영유아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몸짓 손짓을 사용하여 아이와 소통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싶어.",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해보세요. 교사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영유아는 제2언어를 배워나갈 것입니다.

**제2언어(한국어)를 습득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① 자주 이야기 해주세요. 놀이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감탄사, 의성어, 의태어 등을 풍부하게 사용하고, 사물을 지칭하는 단어나 자주 쓰는 표현을 반복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교사의 언어 자극이 영유아의 언어 발달을 촉진합니다.

② 모델링을 통해 언어를 확장해주세요. 예를 들어, 영유아가 "물!"이라고 했다면, 교사는 "물 주세요."라는 문장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③ 영유아의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공 가지고 놀래, 블록 가지고 놀래?"라고 물으면, 영유아는 교사의 질문에 사용된 단어로 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은 영유아로 하여금 교사의 말을 따라하며 언어를 습득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영유아가 단답형으로 대답 하면, 문장형으로 다시 말해주세요(예: 영유아가 "공!"이라고 말하면, "공을 가지고 놀고 싶구나!"라고 말해주세요). 또한, 사물을 직접 가리키며 "빨간 공 가지고 놀래, 노란 공 가지고 놀래?"라고 물으면 사물과 단어를 직접적으로 연관지음으로써 영유아의 어휘력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④ 주 양육자에게 모국어 사용을 독려해주세요. 그동안 모국어 사용이 언어 발달 지연을 유발한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소수자 영유아 가정에서도 한국어로만 의사소통할 것이 기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언어 발달 지연을 유발합니다. 자라나는 영유아에게 필요한 것은 정서적 안정과 충분한 언어 자극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보호자가 편안하게 느끼는 언어(모국어)[17]를 사용하여 풍부한 언어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영유아에게 언어 자극은 언어 종류와 수에 상관없이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세요. 제2언어를 습득하고 있는 영유아는 때로 언어 발달이 또래보다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의 뇌는 새로운 언어를 파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답니다. 영유아를 믿고 기다려주세요.

[17] 보호자 스스로 제2언어인 한국어 사용에 불편함이 없다면 한국어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Q** 영유아가 여러 번 같은 말을 했는데도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냥 알아들은 척 넘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A**

혹시 한국어가 모국어인 영유아가 하는 말은 한 단어도 빠짐없이 다 이해하시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또래보다 발음이 분명하거나 어휘력이 풍부한 영유아도, 그렇지 않은 영유아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영유아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할 때는 '언어 차이' 때문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말이나 행동이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놀이실에서 영유아가 하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중요한 것은 "네가(영유아) 말을 잘 못해서 내가(교사) 못 알아듣겠어."라는 메시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보다 "네가 하는 말이 너무 궁금한데 선생님이 잘 못 알아 듣기도 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OO가 하는 말이 너무 궁금한데,
천천히 다시 말해 줄 수 있겠니?"

영유아가 다시 말했음에도 알아 듣기 어려울 때는,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부탁하거나, 책에 있는 그림으로 알려달라고 해 보세요. 그래도 알아 들을 수 없을 때는 "선생님이 다음에는 꼭 알아들을 수 있게 더 노력해볼게."라고 이야기 해 주세요. 자신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주는 교사의 모습에 영유아는 신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신뢰 관계 속에 언어는 시나브로 발달합니다.

**Q** 영유아가 놀이실에서 한국어가 아닌 말을 해요. 어떻게 반응해주어야 하나요?

**A**

소수자 영유아의 말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영유아가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거나 비언어적인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유아가 놀이실에서 영유아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모국어든 제2언어인 한국어든,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한다는 것은 영유아가 일반적인 과정으로 발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가정에서는 모국어 사용을 권장하고, 어린이집에서는 한국어로 자주 이야기 해주세요. 어느 순간 영유아는 유창한 이중언어 구사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유아가 모국어도, 한국어도 아닌 소리를 언어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만24개월 이상의 영유아가 모국어/한국어로 단어를 말하지 못하고 언어가 아닌 소리를 낸다면, 청각 또는 언어 장애가 의심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영유아가 한국어 이외의 소리를 낼 때 교사가 그것이 영유아의 모국어라 생각할 때입니다. 때문에 영유아 보호자와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영유아가 가정에서 모국어를 어느 정도로 구사하는지 파악하고,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이야기 하는 것을 녹음하여 영유아가 하는 말이 모국어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영유아가 하는 말이 모국어가 아니라면,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와 같은 병원에 의뢰하여 언어 발달 상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한국보육진흥원, 2020)[37].

## 2) 사회/정서 영역

**Q** **언어적 소수자 영유아에게 본인이 다문화임을 알려줘야 하나요?**

**A**

다문화보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양함이 존중되고, 인종, 언어, 민족, 문화적으로 소수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반이 문화적 다양성을 환영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분위기라면, 영유아가 인종, 언어, 민족,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양성이 존중되지 못하는 환경이라면, 주류 집단과 다른 인종, 언어,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것이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사실이 되겠지요. 영유아의 인종, 언어, 민족, 문화적 정체성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이를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환경은 교사가 만드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언어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문화 영유아 → 인종, 언어, 민족,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영유아**
**한국어를 못하는 아이 →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영유아 또는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영유아**

그동안 '다문화'라는 말은 주류 집단에 속하는 고정관념적인 '한국인' 아이와 대조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사회적 낙인, 혹은 딱지/꼬리표 같은 의미로 주로 사용되어 왔지요. 비슷한 맥락으로, 언어적 소수자 영유아는 '한국어를 못 하는' 아이로 묘사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표현은 한국어 외의 모든 언어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영유아"나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영유아"라는 표현은 어떤가요? 영유아가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표현이지요. 일상생활에서도 영유아의 부족한 점을 부각하는 표현이 아니라, **장점을 드러내는 표현을 써 보세요. 영유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Q** 내성적인 소수자 영유아에게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A** 우리는 때때로 소수자 영유아의 인종, 언어, 민족, 문화적 배경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들을 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소수자 영유아 역시 인간 보편의 성격과 개인차에 따른 성격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성적인 성향을 보이는 소수자 영유아는 그저 내성적인 성향이 있는 영유아일뿐입니다. 영유아의 인종, 언어, 민족,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편안하게 다가가지 못한다면, 영유아는 놀이실에서 더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성적인 성향은 단점이 아닙니다.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에 비해 신중하고 세심한 것뿐입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영유아는 영유아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교사, 친구, 놀이실 환경, 교구 등을 탐험할 수 있게 기다려 주세요. 다양한 신뢰의 표현을 통해 "네가 준비가 될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을게. 네가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나에게 말해줘."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유아의 장점을 찾고, 영유아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영유아와 신뢰의 관계를 쌓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Q** 주류 집단 영유아가 소수자 영유아가 가진 '다름'에 대해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A**

영유아는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선생님! 00는 왜 말을 못해요?"
"선생님! 00는 피부가 까매서 무서워요!"

이러한 영유아의 질문이나 말에 "쉿!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야."라고 하거나 못 들은 척 대답을 회피하는 행동은 영유아로 하여금 소수자 영유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합니다. 더불어, 인종, 언어, 민족, 문화적 차이에 대해 이상한 것, 나쁜 것,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하게 만듭니다. 주류 집단 영유아가 소수자 영유아에 대해 자칫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이어질 수 있을만한 말을 했을 때는 그 순간 바로 대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도 원래 한국어를 쓰지만 영어를 배우기도 하지?
00도 원래는 러시아어를 쓰는데, 지금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거란다.
우리가 00와 함께 놀면서 지내다보면 어느새
00와 우리가 이야기를 더 잘 나누게 될 거야!"

만약, 영유아의 표현이 이미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영유아에게 되물어 대화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어두운 것이 왜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니?"

이어서 피부색이 다른 것은 모두의 생김새가 다른 것과 같은 것이지, 피부색이 어둡다고 무섭고, 어둡지 않다고 안 무서운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대화에 기반하여 피부색에 대한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살구색, 주황색, 갈색, 밤색, 흰색, 빨간색 등을 섞어 영유아의 피부와 가장 가까운 색을 만드는 활동을 해 보세요. 알고 보면 우리 모두 조금씩 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우리 모두 다르고, 달라도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보세요. 더불어 <세계인종지도>를 보며 각 나라의 위치에 따라 받는 태양열의 차이로 피부색이 달라진 것임을 이야기하면 외형적 다양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Q** 소수자 영유아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어적 표현에 한계를 느끼는 영유아는 종종 말보다 몸이 앞서 나가곤 합니다. 친구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갖고 싶을 때 덥석 장난감을 뺏어간다든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물건을 던지기도 하지요. 이것은 소수자 영유아, 주류 집단 영유아 모두 해당됩니다. 이럴 때는 명확한 언어를 사용한 교사의 공감과 모델링이 중요합니다.

"우리 OO가 친구가 가지고 노는 로봇이 갖고 싶었구나.
그럴 때는 친구에게 '나도 로봇 가지고 놀고 싶어'라고 이야기 해보자.
선생님 따라해볼까? '친구야, 나도 로봇 가지고 놀고 싶어.'"

**A**

물건을 빼앗긴 친구에게도 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야, OO가 갑자기 로봇을 뺏어가서 놀랐지?
OO도 로봇을 가지고 놀고 싶었대. 우리 △△는 지금까지 로봇을 가지고 놀았으니
앞으로 5분만 더 가지고 놀다가 OO에게 주자.
'친구야, 5분 있다가 줄게'라고 이야기 해보자."

영유아 간의 언어적 의사소통이 원활해질 때까지 꾸준히 모델링을 해주고, 언어적으로 표현했을 때 격려하다보면 어느새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몸보다 말을 쓰는 영유아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 3) 신체/건강 영역

**Q** 한국 음식이 낯선지 잘 먹지 않습니다.

**A**

영유아의 식습관 및 기본생활습관은 다양합니다. 주류 집단 영유아 역시 다양한 식습관을 갖고 있고, 편식을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소수자 영유아가 음식을 거부하거나 편식을 하면 자동반사적으로 '문화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 알레르기가 있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영유아가 편식을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입맛이 까다로운 경우와 푸드 네오포비아[18]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소수자 영유아, 주류 집단 영유아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입맛이 까다로운 영유아 vs. 푸드 네오포비아가 있는 영유아>**[38) 39)]

| 입맛이 까다로움 | 푸드 네오포비아 |
|---|---|
| • 익숙한 음식, 낯선 음식 모두 거부<br>• 먹는 음식의 양이 적거나 특정 음식 거부<br>• 음식을 맛보기 전/후 모두 나타남<br>• 신생아기에도 특징이 나타남(19~24개월경 영아 50%가 입맛이 까다로운 아이로 보고됨); 이 특징이 만 2.5~4.5세까지 이어짐. 만 2세 영아에게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다가 만 6세가 되면 줄어듦<br>• 자율성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 • 새로운 음식을 주저하거나 거부<br>• 낯선 음식이 생명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동물적 반응 중 하나<br>• 음식을 맛보기 전에 나타남<br>• 이미 먹어본 음식이었어도 새로운 형태면 거부<br>•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시기부터 시작하여 만 2~6세에 절정; 사춘기와 성인기에 급격히 줄어듦<br>• 새로운 것에 개방적이지 않은 성격과도 관련이 있음 |

둘 중 어떤 경우가 되었든, 편식을 지도하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① 교사나 또래 영유아가 맛있게 먹는 모습 보이기

② 영유아가 거부하는 식재료를 점진적으로 소개하기(냄새 맡기→혀로 맛보기→입에 넣고 씹기)

③ 식사 시간 전 공복 유지하기

④ 새로운 음식을 시도했을 때 격려해주기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식사 시간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영유아가 각자의 속도로 음식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이 모든 과정을 영유아 보호자와 공유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 역시 잊지 말아주세요.

⑱ 푸드 네오포비아는 음식을 뜻하는 푸드(food)라는 단어에 새롭거나 낯선 것에 대한 공포증을 뜻하는 네오포비아(neophobia)가 합성된 단어로, 새롭거나 낯선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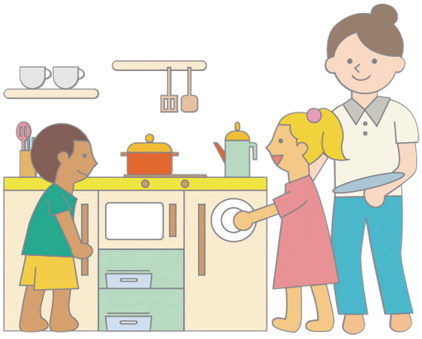
### 4) 놀이/ 활동

**Q** 다문화보육은 하루 일과 중 언제 해야 하나요?

다문화보육은 언어, 수, 과학, 음악, 신체활동, 미술처럼 한 가지 주제로 언어/인지/신체 능력 등의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영유아로 하여금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종, 언어, 민족, 문화적 차이를 인지·존중하는 태도를 지니게 하고, 차별·고정관념을 타파하도록 이끌어주는 보육이기 때문에 놀이와 대화를 통해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19]

일상생활 속 영유아가 사용하는 단어, 몸짓, 또는 놀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유아 간의 대화,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보세요. 문화적 다양성을 격려해야 할 순간, 다름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을 민감하게 포착하여 다양성은 지원하고, 고정관념은 편견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중재하는 것이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보육의 모습입니다(Derman-Sparks & Edwards, 2010)[40].

**A**



**영유아 1: "나는 달걀 못 먹어!"**
**교사: "맞아. OO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달걀을 못 먹지? 어떤 사람은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서 땅콩을 못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야채만 먹기도 한단다. 우리 모두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듯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조금씩 다르단다."**

⑲ 다문화보육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2장 다문화보육 실천하기'를 참고해주세요.

A

영유아: "OO는 남자인데 머리가 길대요~"
교사: "얘들아, 여자도 머리를 짧게 자를 수 있고 남자도 머리를 길게 기를 수 있단다. 선생님이랑 같이 사진을 봐 볼까?"

만약, 고정적인 하루 일과로 포함하고 싶다면 아침 인사 시간을 활용해 보세요.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인사하기/숫자 세기/노래하기, 영유아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영유아가 가정에서 읽기 좋아하는 책 소개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도적이고 습관적으로 다문화보육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Q** 연령이 낮은 영아에게는 어떻게 다문화보육을 해야 하나요?

많은 교사들이 다문화보육은 다문화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언어와 사고 체계를 형성해나가고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다문화보육 한다는 것이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보육은 어떠한 '주제'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인종, 언어, 민족, 문화적 배경이 다른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다양한 차이를 즐길 수 있는 마음가짐을 길러주는 것이지요. 다양성이 반영된 놀이실 환경을 구성하는 것, 소수자 영유아 및 보호자와 라포를 형성하는 것 모두 '다름'이 존중받는 놀이실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A** 영아와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된다면, 다양한 인종, 언어, 민족, 문화가 반영된 그림책, 노래, 교구, 놀잇감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영유아의 소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후 손을 사용하는 섬세한 활동(글쓰기, 그림 그리기 등)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영아기부터 노출된 다양한 환경은 다문화감수성을 높이는 든든한 초석이 됩니다. 이때 교사가 무의식 중에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전달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영아는 교사의 표정과 말투로 중요한 것, 혹은 중요하지 않은 것, 해도 되는 것, 혹은 하면 안 되는 것을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놀이실 환경을 구성하거나 미술 활동을 계획할 때 검은색을 제외하지는 않는지, 공주 옷을 입겠다는 남자 영유아의 말에 당황한 표정을 짓지는 않는지 등 교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비판적인 질문을 하는 것 역시 다문화보육을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Q**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다문화보육을 접목시키는 방법이 궁금해요.**

**A**

놀이는 영유아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놀이는 "유아가 세상을 경험하고 배워 가는 방식"으로, 영유아는 놀이를 통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세상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합니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p. 13)[41]. 하지만 놀이는 배움의 '수단'이지 배움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의도적인 계획을 통해 놀이의 범위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놀이를 주도하는 것은 영유아이지만, 놀이 중에 어떤 노래를 소개할지, 어떤 놀잇감을 제공할지, 어떤 행동을 강화하고 제지할 것인지 등은 교사가 정하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놀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영유아의 대화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놀이실에서 재생산되는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해서 즉시 개입하여 바로 잡아주고, 추후 그림책, 이야기 인형, 역할극 등과 같은 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의 한 영유아 교육기관에서는 **'거꾸로 하는 날'**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날은 모든 것을 거꾸로 하여 시간을 보내는 날입니다.
놀이실의 책상, 의자, 교구, 도서 등 놀이실의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 있고
영유아들도 옷을 거꾸로 입고 등원합니다.

영유아들은 '거꾸로 하는 날' 하루 동안 무엇을 느꼈을까요?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한참을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평소와는 다른 환경과 또래들의 모습을 통해 다름도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놀이 활동은 영유아의 일상에서 다양성을 즐기고 다름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Q 다문화보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 A

그림, 인형, 놀잇감, 그림책 등 다문화보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무궁무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진은 영유아에게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소개하기에 효과적인 매체입니다. 이때, 다양한 피부색, 머리카락, 직업, 가족 형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을 사용하되, 영유아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과 감정을 담고 있는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예: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진;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사진). 겉모습은 다르지만 모두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비슷한 활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성 소방관, 스포츠에 참여하는 장애인, 남성 간호사 등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사진들도 사용해야 합니다. 영유아는 사진으로 보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사회에 대한 지식과 사고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Ramsey, 2004)[32].

영유아의 가정 역시 훌륭한 활동 자료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와 함께 한 활동을 보호자에게 사진과 글을 통해 전달하고 활동의 결과물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보호자는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을 배우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유아가 가정에서 한 활동을 어린이집 활동에 활용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아니오.'라는 대답이 더 많을 것입니다. 영유아의 가정이 활동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어린이집 활동을 연계하는 것이야말로 영유아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방법으로 다문화보육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가정을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가정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가정 방문'입니다. 가정 방문은 주로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 공간이 낯설 영유아에게 교사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영유아의 보호자와도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양육 환경, 가족의 문화, 좋아하는 장난감 등 영유아와 영유아의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가정 방문 시 영유아와 사진을 찍고, 이 사진들로 책을 만들어 보세요. 영유아가 반에 소속감을 느끼고 반 친구들과 서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 설문지'를 돌리는 것입니다. 이 역시 새로운 영유아를 만나기 전, 영유아와 영유아의 가족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A**

**<가정 설문지 질문 예시>**

1. 집에서 영유아를 부르는 애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 영유아는 집에서 보호자(부/모/조부/조모 등)를 어떻게 부르나요?
3. 집에서 주로 쓰는 언어는 무엇인가요?
4.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5. 우리 가족이 싫어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음식 알레르기나 다른 이유로 못 먹는 음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6. 우리 가족은 주말에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요?
7. 영유아의 애착 인형/물건은 무엇인가요? 이름은 무엇인가요?
8. 영유아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책/노래는 무엇인가요?
9. 우리 가족만의 독특한 문화는 무엇인가요?
10. 우리 가족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가정 방문이나 설문지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영유아에게 친근한 놀이실 환경을 꾸며 보세요. 영유아 가정의 특징을 활용한 활동을 계획하거나 직접 보호자를 어린이집으로 초청하여 가정의 문화를 어린이집에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영유아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다문화보육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 3-2. 소수자 보호자, 이것이 궁금해요.

**Q** 다양한 국적, 문화권의 영유아 가정의 특징에 대해 알고 싶어요.

**A** 다들 한번쯤 다양한 국적, 문화권의 영유아를 보면서 '내가 저 나라의 문화/언어를 잘 알았더라면...!'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동일 국가, 문화, 인종의 영유아/영유아 가정은 가치관이나 생활습관이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 역시 고정관념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20] 앞서 소개된 가정방문과 가정 설문지를 돌리는 방법을 통해 각 가정에 대해 직접 알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Q** 보호자가 영유아가 문화적 소수자인 것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A** 영유아가 문화적 소수자인 것을 숨기고 싶어 하는 보호자는 아마 언어, 민족, 문화적 차이로 인해 영유아가 받을 차별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먼저, 보호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우리 반과 어린이집은 다양성을 환영하고 존중하는 곳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를 보여줄 수 있는 놀이실 환경이나 활동에 직접 초대해보세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어린이집과 교사에 대한 신뢰가 생길 것입니다. 올바른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영유아의 심리·정서적 안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알려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의 문화적 정체성을 숨기고 싶어 한다면,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20] 1장 '1-1. 다문화사회, 한국'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Q 언어가 다른 보호자와의 소통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언어가 다른 보호자와의 소통은 한국어가 모국어인 보호자와의 소통보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의사소통의 주요 수단인 언어 차이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인종, 민족, 문화적 차이에서 느끼는 막연한 부담감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소수자 보호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많은데, 선생님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 우리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예뻐해 주실까?' 등의 걱정을 할 것입니다. 보호자와 충분히 라포를 형성한 후[21],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보세요.

①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역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센터별로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중 1~4개 언어의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즉석에서 통역이 가능한 보호자/대리인를 초대하여 의사소통 해보세요. 전화, 서면, 대면 중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 미리 묻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③ 주 양육자와 통역 대리인이 함께 자리에 나올 수 없어 통역 가능한 보호자/대리인을 통해 주 양육자에게 의사 전달을 해야 한다면, 전달 내용별로 중요도를 표시하여 알려주세요. 여러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전달 과정에서 정확도가 떨어지게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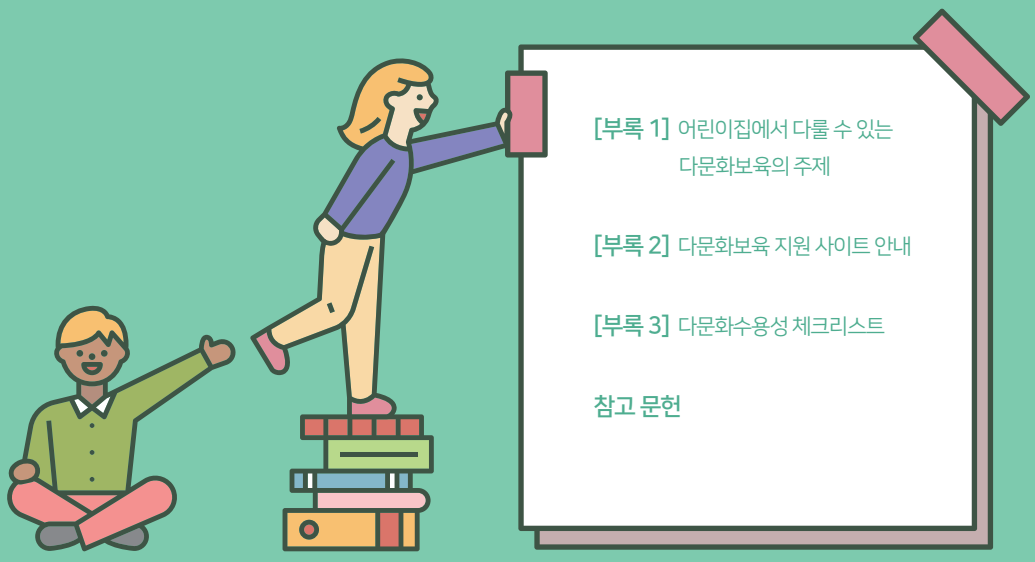
④ 간단한 표현의 경우 번역기(구글, 파파고, 카카오 등)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번역기의 경우, 잘못된 번역으로 상대의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같은 언어를 쓰는 소수자 보호자를 서로 소개시켜주고, 어린이집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모임 형성을 도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유아의 보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교사의 진심어린 태도와 노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21] 2장 '2-2, 2) 영유아·보호자와 라포 형성하기'를 참고해주세요.

# 4장

"부록"



[부록 1] 어린이집에서 다룰 수 있는
다문화보육의 주제

[부록 2] 다문화보육 지원 사이트 안내

[부록 3] 다문화수용성 체크리스트

참고 문헌

## [부록 1] 놀이실에서 다룰 수 있는 다문화보육의 주제

다문화보육은 개인, 가족, 집단, 사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문화다양성(인종, 언어, 성별, 능력, 계층, 외모, 가족구성, 직업, 전통, 역사, 환경, 종교 등)을 주제로 다룰 수 있습니다(김영옥, 2007)[41]. 그 중 영유아기에는 영유아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문화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외모, 성별, 가족구성, 직업, 언어, 장애, 환경을 다룰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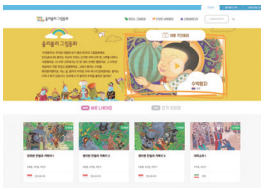
| 주제 | 내용 |
|---|---|
| 외모 | 다양한 외모(체형, 계층, 장애), 다양한 인종 |
| 성별 | 성역할, 성차별, 양성평등 |
| 가족구성 | 다양한 가족구성, 입양가족, 한부모가족, 이혼가족, 조손가족, 재혼가족, 외국인가족, 결혼이민 가족 |
| 직업 | 다양한 직업, 직업의 고정관념 |
| 언어 | 다양한 사투리, 다양한 외국어, 수화, 모국어 |
| 장애 | 신체장애, 유능한 장애인, 장애보조기구, 안내견 |
| 환경 | 다양한 생활 모습(날씨, 위치, 풍습) |

다양성을 다룰 수 있는 위의 주제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의 장점을 찾아보세요. 다양한 문화의 장점을 찾아봄으로써 영유아가 '다름'을 낯설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는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괜찮아.', '우리는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어.'와 같은 배움을 얻고 다양성이 주는 장점과 풍성함을 즐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과 편견을 배제하는 교사의 말과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 [부록 2] 다문화보육 지원 사이트 안내

다양한 문화와 다문화보육에 대한 지식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 습득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다문화보육 지원 기관을 소개합니다.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보육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 다문화보육 지원 사이트 | 내용 | |
|---|---|---|
| 한국건강가정진흥원<br>https://kihf.or.kr | **여성가족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가족정책 시행을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br>·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25개소)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8개소) 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전달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br>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br>https://www.liveinkorea.kr/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개발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지자체 단위의 기관들로 하단의 서비스를 제공한다.<br>· **사업방향**: 다문화가족 한국사회 조기적응,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br>· **주요사업:**<br>- 다문화자녀 인지자아정서사회성 발달 지원, 문화역량강화, 시민 교육 제공<br>- 다문화가족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br>- 이중언어 부모/가족코칭<br>-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br>-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br>- 결혼이민자 자녀학습지도를 위한 한국어 교육 등 | |
| i-누리<br>https://i-nuri.go.kr/main/index.do | 누리과정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한다. 놀이와 문화다양성을 연계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 |

| 다문화보육 지원 사이트 | 내용 | |
|---|---|---|
| 온라인 다문화이해교육<br>다누리배움터<br>https://www.danurischool.kr | 온라인교육과 찾아가는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며 다문화이해교육자료, 다문화인식개선콘텐츠, 다양한 문화소개, 유아동 교육자료 등을 제공한다. | |
| 육아종합지원센터<br>http://central.childcare.go.kr | 보육교사를 위한 다문화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다문화교육 교재·교구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 |
| 올리볼리 문화다양성 교육<br>http://ollybolly.org |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차별, 인권, 평화 등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도록 다양성과 관련된 전 세계 그림동화를 영상으로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한다. |  |
| 올리볼리 문화다양성감수성 테스트<br>http://test.ollybolly.org | 초등생용, 성인용 문화다양성감수성 테스트를 제공한다. | |
| 중앙다문화교육센터<br>https://www.edu4mc.or.kr | 국가 다문화교육 정책연구 및 정책사업을 실시하고, 교원과 학부모를 위한 다문화교육 정보를 제공한다. | |

## [부록 3] 다문화수용성 체크리스트

다문화수용성이라는 단어는 주류 집단의 시각이 반영된 표현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주체가 바로 주류 집단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권장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내가 얼마나 사회 곳곳에 스며든 다양성을 즐기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나의 다문화수용성을 확인해보세요.

| 1. 전혀 그렇지 않다 | 2.그렇지 않다 | 3. 보통이다 | 4. 그렇다 | 5.매우 그렇다 |
|---|---|---|---|---|

### <다문화수용성 체크리스트>[43]

| 문항 | 1 | 2 | 3 | 4 | 5 |
|---|---|---|---|---|---|
| 나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 | | | | |
| 나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이 흥미롭다 | | | | | |
| 나는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아시아 국가와의 문화교류도 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 | |
| 나는 외국이주민들이 우리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을 찬성한다 | | | | | |
| 부모 중 한 부모 이상이 한국인인 외국이주민은 한국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 | | |
| 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활동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 | | | | |
| 나는 이웃에 사는 외국이주민들이 자주 모여 자신 들의 고유 요리를 즐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 | | | | |
| 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이주민들끼리 따로 모여서 자기들의 음악이나 무용, 공연을 즐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 | | | | |
| 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이주민들이 따로 모여서 자 신들의 종교행사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 | | | | |
|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이주민의 옆자리에 앉는 것은 피하고 싶다 | | | | | |
| 버스에서 옆자리에 백인이 앉았을 때보다 흑인이 앉았을 때, 더 무서운 생각이 든다 | | | | | |
| 수영장이나 공중목욕탕에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이주민과 함께 들어가는 것은 꺼려진다 | | | | | |
| 외국이주민이 길을 물어오면 모른 척 하고 싶다 | | | | | |
| 다른 동네는 몰라도 이웃에 생소한 문화를 가진 외국이주민이 사는 것은 싫다 | | | | | |

| 문항 | 1 | 2 | 3 | 4 | 5 |
|---|---|---|---|---|---|
| 내가 학교나 직장에서 조선족이나 탈북자를 동료로 만나면 먼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하겠다 | | | | | |
| 내가 만약에 미혼이라면, 상대방의 인종, 국적, 문화권에 상관없이 데이트를 하겠다 | | | | | |
| 나는 외국인 근로자가 모여 사는 지역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겠다 | | | | | |
| 나는 외국이주민이 나의 가족이 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없다 | | | | | |
| 나는 외국이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싶다 | | | | | |
| 외국이주민을 배우자로 맞이한 한국 남성은 아내의 모국어도 배워야 한다 | | | | | |
| 외국이주민의 자녀는 한국어와 더불어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모국어도 배워야 한다 | | | | | |
| 외국이주민의 가정은 한국 명절과 더불어 모국의 명절이나 풍습도 챙겨야 한다 | | | | | |
| 외국이주민의 가정은 한국의 가족 뿐 아니라 고향에 있는 부모나 가족을 챙겨야 한다 | | | | | |
| 외국이주민과 내가 서로의 가치관과 신념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 | | | | |
| 한국인이 외국이주민들을 이해해 주길 바라기 보다는 이주민들이 한국인을 이해하려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 | | | | |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이주민 여성은 시댁의 풍습 과 예절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 | | | | |
| 한국에 들어와 살고자 하는 외국이주민은 자기의 문화를 버리고 한국문화나 관습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 | | | | |
|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이주민의 자녀는 부모 나라의 언어보다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 | | | | |
|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외국이주민들은 한국과는 다른 자신들의 전통이나 생활습관을 버려야 한다 | | | | | |
| 외국이주민은 수동적인 존재이다 | | | | | |
| 외국이주민들이 사는 지역은 지저분하다 | | | | | |
| 외국이주민은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 | | | | | |

## [참고 문헌]


1) 보건복지부(2020). 2020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2) 허동현(2009). 한국 근대에서 단일민족 신화의 역사적 형성 과정. 동북아역사논총, 23, 7-35.

3) Kim, J. Jeon, S., Choi, J., Blazyte, A., Jeon, Y., Kim, J., Ohashi, J., Tokunaga, K., Sugano, S., Fuchareon, S., Al-Mulla, F., Bhak, J. (2020). The origin and composition of Korean ethnicity analyzed by acient and present-day genome sequences. Genome Biology and Evolution, 12(5), 553-565.

4) 통계개발원(2008). 한국의 사회동향 2008.

5) 교육부(2020). 다름을 즐기는 시간, 놀이: 2019 개정 누리과정 학부모 이해 자료 <다문화> https://www.i-nuri.go.kr/main/board/index.do?menu_idx=105&manage_idx=59&how_show=each

6) 보건복지부(2000).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7) Banks, J. A. (2004). Multicultural education: Historical development, dimensions, and practice. In J. A. Banks & C. A. Banks (Eds.), Handbook of research on multicultural education (2nd ed.)(pp. 3-29). San Francisco, CA: Jossey Bass.

8) Gay, G. (1994). At the essence of learning: Multicultural education. West Lafayette, IN: Kappa Delta Pi.

9) Nieto, S. (2002). Language, culture, and teaching: Critical perspectives for a new century.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0) Ramsey, P. G., & Williams, L. (Eds). (2003). Multicultural education: A sourcebook. New York, NY: Routledge.

11) 김지혜(2019). 선량한 차별주의자. 창비.

12) Arizona State University (n.d.). White-privilege checklist. Project Humanities. https://projecthumanities.asu.edu/content/white-privilege-checklist

13) 감수성(2019년 10월 1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14) Sensitivity. (n.d.). 네이버 영어사전. https://en.dict.naver.com/#/entry/enko/00555964fbf743ab9ba1cc353cb0abfc

15) Kile, N. C. (2018, December 28). What are the stages of cultural awareness? ContinuED. https://www.continued.com/early-childhood-education/ask-the-experts/what-stages-cultural-awareness-23104

16) 이규림(2011). 유아교사의 다문화감수성, 다문화교육 이해 및 태도의 관계: 다문화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7) 선입견 (2021년 5월 27일). 네이버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7d91f52b4934450b997995ad55843ef4

18) 박지선(2014). 편견. 심리학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70221&cid=41991&categoryId=41991

19) 고정관념 (2000년 1월 10일). 교육심리학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43566&cid=41989&categoryId=41989

20) 곽호완·박창호·이태연·김문수·진영선(2008). 실험심리학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71366&cid=41990&categoryId=41990

21) 송현숙·박은하(2019년 1월 28일). [다시 쓰는 인구론]'그들'이라 불렀던 이주민, 이젠 '우리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280600105&code=940100

22) Marcos, K. M. (1998). Second language learning: Everyone can benefit. The ERIC review, 6(1), 2-5.

23) Paradis, J., Genesee, F., & Crago, M. (2011). Dual language development and disorders: A handbook on bilingualism & second language learning. Baltimore, MD: Paul H. Brookes Publishing.

24) Nacamulli, M. (2015, June 23). The benefits of the bilingual brain [Video file]. https://www.ted.com/talks/mia_nacamulli_the_benefits_of_a_bilingual_brain

25) Fenner, K. (2017, March 20). Identifying language delay in bilingual language learners. Special Kids Theraphy & Nursing Center. https://www.specialkidstn.com/therapyandnursingblog/2017/3/19/identifying-language-delay-in-bilingual-language-learners

26) Prath, S. (2016). Red Flags for Speech-Language Impairment in Bilingual Children. The ASHA Leader, 21(11), 32-33.

27) 신다현(2021년 4월 17일). [SNS세상]"노래할 땐 사투리 안 쓰냐고?...지방말투 차별 마세요."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5080500505?input=1195m

28) Ladson-Billings, G. (1994). The dreamkeepers: Successful teachers of African American childre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29) Gay, G. (2000). 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2nd ed.). New York, NY: Teachers College Press.

30) Paris, D., & Alim, H. S. (2014). What are we seeking to sustain through culturally sustaining pedagogy? A Loving critique forward. Harvard Educational Review, 84(1), 85-100.

31) 라포(1996년 3월 1일). 간호학대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90062&cid=60408&categoryId=55558

32) Ramsey, P. G. (2004). Teaching and learning in a diverse world: Multicultural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New York, NY: Teachers College Press.

33) Harper, L. J., & Brand, S. T. (2010). More alike than different: Promoting respect through multicultural books & literacy strategies. Childhood Education: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Childhood Education International, 86(4), 224-233.

34) 늑대와 일곱 마리 아기 염소(2021년 5월 28일).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늑대와_일곱_마리_아기_염소

35) Souto-Manning, M. (2013). Multicultural teaching in the early childhood classroom: Approaches, strategies, and tools Preschool-2nd grade. New York, NY: Teachers College Press.

36) Preston, K. (2014). When a child goes silent: A bilingual child stops speaking and nobody knows why. With no language to guide them, speech-language pathologists may struggle to determine whether the root cause is selective mutism, the silent period of second-language learning, or something else. The ASHA Leader, 19(11), 34-38.

37) 한국보육진흥원(2020). 발달이 느린 우리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

38) Lafraire, J., Rioux, C., Giboreau, A., & Picard. D. (2016). Food rejections in children: Cognitive and social/environmental factors involved in food neophobia and picky/fussy eating behavior. Appetite, 96, 347-357.

39) Łoboś, P., & Januszewicz, A. (2019). Food neophobia in children. Pediatric Endocrinology Diabetes and Metabolism, 25(3), 150-154.

40) Derman-Sparks, L., Edwards, J. O., &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2010). Anti-bias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and ourselves.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41) 교육부, 보건복지부(2019). 2019년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42) 김영옥(2007). 다문화 사회의 유아교육과정 방향 탐색.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3), 45-68.

43) 황성욱·조윤용·이철한(2014). 다문화수용성,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다문화수용성 측정 지수 개발. 분쟁해결연구, 12(3), 167-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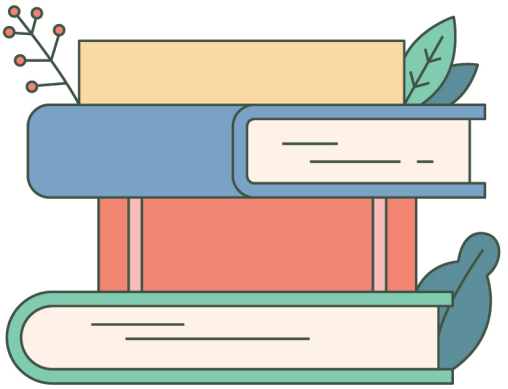
집필진 _
**책임** 김혜영 교수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보조** 이수진 (대구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

**2021년 11월 발행**

| | |
|---|---|
| **발행처** | 한국보육진흥원 |
| **발행인** | 한국보육진흥원장 |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
| **전화** | 02) 6901 - 0100 |
| **홈페이지** | www.kcpi.or.kr |
| **디자인** | 커뮤니케이션우디<br>070) 8708 - 3600 |
| **인쇄처** | (주)두루행복한세상<br>070) 5080 - 0118 |

ISBN 978-89-98842-60-4

* 본 책자의 판권은 한국보육진흥원에 있습니다.
* 이 책을 무단 전재 또는 복제 행위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PRINTED WITH SOY INK
FSC
본 책자는 친환경 인증된 콩기름 잉크와 종이를 사용하였습니다.

KCPI 한국보육진흥원
Korea Childcare Promotion Institute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TEL: 02) 6901- 0100 www.kcpi.or.kr